

2023

인천 문화 관련 연구 논문집

인천문화재단·인천학연구원 공동기획
논문 공모 지원사업 결과 자료집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범패·작법무의 전승 가치에 관한 연구 • **우상희**
식민도시 '제물포' 풍경의 안과 밖 : 1920~40년대 '인천' 시편을 중심으로 • **최현식**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3

인천 문화 관련 연구 논문집

인천문화재단·인천학연구원 공동기획
논문 공모 지원사업 결과 자료집

일 러 두 기

1. 이 자료집은 2023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 인천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신진연구자를 육성·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2. 여기에 실린 논문은 모두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3. 논문 게재 순서는 연구자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정했습니다.
4. 논문의 저작권은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CONTENTS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범패·작법무의 전승 가치에 관한 연구

우상희

I. 서론	3
II. 인천수륙재의 연원	4
1. 역사적 배경	4
2. 지리적 특성	5
III. 염불과 화청의 형태	6
1. 고성염불과 간성(間聲)	6
2. 화청의 간접화법적 묘출	7
IV. 작법무의 전승 양상	8
1. 춤사위의 특징	8
2. 작법무의 보존성	10
V. 결론	12

식민도시 '제물포' 풍경의 안과 밖
: 1920~40년대 '인천' 시편을 중심으로

최현식

1. 식민도시 '제물포'의 장소성을 읽는다는 것	17
2. 장래 유학생 김소월의 시선, '진센'-'제물포'의 균열	19
3. '실심한' '점경'의 '이국정조', 고독한 '이방인'의 '제물포'	23
4.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인천항', '비애'와 '절망' 무역의 '항구'	29
5. 결론을 대신하여 : 해방기 '인천항'의 잔영	33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범패·작법무의 전승 가치에 관한 연구

우 상 희*

I. 서론

II. 인천수륙재의 연원

1. 역사적 배경
2. 지리적 특성

III. 염불과 화청의 형태

1. 고성염불과 간성(間聲)
2. 화청의 간접화법적 묘출

IV. 작법무의 전승 양상

1. 춤사위의 특징
2. 작법무의 보존성

V. 결론

요약문

본 논문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제15호 인천수륙재 예능보유자인 박일초스님의 범패·작법무에 나타나는 독자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보존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인천에서 수륙재가 자리를 잡게 된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와 제15호 인천수륙재에 나타나는 범패와 작법무의 독자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와 제15호 인천수륙재의 전승·보존 과정 중 현시대에서 소실되었거나 인천수륙재에서만 설행되고 있는 특수한 작법무에 대한 보존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인천수륙재의 예능보유자는 박일초스님으로 2002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로도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꾸준히 학인 양성에 기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종목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범패와 작법무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수륙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산재·시왕각배재·상주권공재 외에 재의식 전반에 해당하는 모든 범패와 작법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박일초 보유자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수륙재가 자리 잡게 된 배경과 상황, 그 안에서 전승·보존되고 있는 박일초스님의 수행과 공력이 녹아있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와 제15호 인천수륙재에서 보여지는 범패와 작법무의 독자적인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한 결과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어 향후 학계에서 인천의 무형문화재들이 활발히 연구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와 제15호 인천수륙재는 예능보유자 박일초스님의 개성 있는 성음과 간성이 더해진 화려하지만 무상한 범패와 지역적 특성인 해풍을 연상시키는 작법무의 춤사위가 보존·전승 되어오고 있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설행되고 있는 작법 외에 소실되었거나 타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작법무에 대한 보존력이 상당히 높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의식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그 보존의 가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불교의식, 인천수륙재, 범패, 작법무, 화청

I. 서론

한국의 불교의식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정착되면서 각 지방 특색에 따라 경제·영제·중제·호남제·제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식문화를 형성해 왔다. 1973년 경제범패의 중심지인 봉원사 범패승(송암·운공·벽응)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보유자로 지정되면서 각 지방에서도 불교의식이 무형문화재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 재의식은 크게 상주권공재·시왕각배재·영산재·수륙재·생전예수재 정도로 구분된다. 각 재마다 설행되는 목적 및 의식문의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인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불교의식 전반의 범패와 작법무 1종과 인천수륙재 1종이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는 인천지역 불교의식 전반에서 설행되는 작법무와 그에 해당하는 범패 소리가 별도로 구분되어 2002년에 지정되었으며 2년 후인 2004년 인천수륙재가 지정되었다.

인천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수륙재는 49재·백일재·기재·담재·예수재·백종재·외왕재·산신재·용왕재·조왕재·신중재·제석재 등이 있고 모든 재를 일컬어 천도재라 한다.¹⁾ 예능보유자는 승려 일초(박치훈)이다. 박일초스님은 1960년생으로 1969년 포천 금룡사에 입문하여 지혜스님 문하에서 기초의식을 익혔다. 1979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에 입문 이후 강원을 수료하고 1981년 신촌 봉원사 옥천범음회에서 마일운스님으로부터 상주권공을 수료한 뒤 (故)박송암(1915~2000) 큰 스님의 각배·영산 작법 전과정을 사사했다.

봉원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법주사에서 인천 약사사로 거처를 옮기면서 당시 인천지역 어장인 약사사의 송운포스님과 인천 중구 해광사의 박법운스님께 인천지역에서 행해지는 수륙재의 범패와 작법무를 비롯하여 풍어(豐漁)기원을 목적으로 설행하는 의식절차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²⁾ 거처를 인천으로 옮긴 것이 박일초스님의 불교의식 공부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의 인천수륙재와 인천의 범패와 작법무를 보존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던 셈이다.

1986년 인천 부평구에 포교 사찰을 창건하여 전법과 의례의식 전승에 힘썼다. 2002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로도 지정받아 현재까지 꾸준히 학인 양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종목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범패와 작법무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수륙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산재·시왕각배재·상주권공재 외에 불교의식 전반에 해당하는 모든 범패와 작법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박일초 보유자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일초스님의 범패와 작법무는 경제범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경제범패 역시 3명의 보유자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제자들을 배출해 냈기에 그 형태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전승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예전에는 동영상이나 녹음의 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오롯이 입에서 입으로 몸에서 몸으로 전해졌으므로 전승받은 이들의 기억에 의존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박일초스님 범패 소리는 현존하는 어산 중 열반하신 박송암스님의 범패 원형과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다. 경제범패 원형의 틀을 완성도 있게 유지하면서 박일초스님의 색깔과 경험이 녹아있는 결과물이 지금의 인천수륙재 범패·작법무라 할 수 있다.

인천수륙재와 범패·작법무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까지 인천수륙재 범패·작법무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지연³⁾의 「바라춤 연구-인천수륙재의 바라춤을 중심으로」가 선행연구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불교의식에 대한 고유한 독자성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7710&cid=46655&categoryId=46655>(검색어:인천수륙재).

2) 심효섭·한정미(2022), p. 30.

3) 박지연(2012).

을 기록하여 그 특성과 보존가치를 밝히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와 불교의식을 연구하는 이들을 위한 토대자료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박일초스님을 중심으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작법무와 제15호 인천수륙재에 대해 고찰하고 그 독자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인천수륙재의 연원

1. 역사적 배경

불교의 재의식은 크게 상주권공재·영산재·시왕각배재·수륙재·생전예수재로 분류된다. 그중 인도의 시아귀회(施餓鬼會)⁴⁾에 바탕을 둔 수륙재는 9~10세기 중국 송(宋)에서 독립된 연기(緣起)와 의식문을 갖추어 별도의 의례로 정립되었으며⁵⁾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에서 수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천수륙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원종(5년) “계묘 삼랑성(三郎城)에 있는 임시 궁궐에서 처음으로 대불정오성도량(大佛頂五星道場)을 녀 달 동안 열었다.”⁶⁾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삼랑성은 인천 강화 전등사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酸性)으로 고려 때 몽고의 침략으로 서울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 임시 궁궐을 지은 곳이다.⁷⁾

대불정오성도량은 불정심도량(佛頂心道場) 또는 불정도량(佛頂道場)으로도 불리며 재액을 없애고 복을 비는 의식으로 수륙재가 천도재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전 나타났던 불교의식의 형태이다. 이 당시 불교의식은 지금과 같이 개인적으로 가내태평과 집안의 조상을 천도하는 목적에만 국한된 자생적 형태가 아닌 역병이나 천재지변, 나라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와 국태안민이 목적이었으므로 호국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 일관(日官)을 맡고 있던 최사겸이 송에서 수륙의문을 구해와 수륙당을 지어 수륙재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⁸⁾ 구병이나 망자천도의 설행목적은 갖게 된 시기는 고려후기 수륙재가 민간으로 확대된 이후 였으므로⁹⁾ 불정도량이나 법회, 무차대회(無遮大會), 화엄법회(華嚴法會), 제석재(帝釋齋) 등과 같은 고려전기의 불교의례들은 현행 수륙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¹⁰⁾

조선건국 후 태조는 국가 정비를 위해 고려의 마지막 왕씨 일가를 삼척·거제도·강화에 귀양보낸 뒤 제거하였다.¹¹⁾ 이듬해 4년 2월 임금이 고려의 왕씨를 위해 관음굴·현암사·삼화사에 수륙재를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다.¹²⁾ 이때 설행되었던 수륙재가 조선건국 후 처음으로 설행되었던 수륙재였으며 특정 영가뿐만 아니라 일체유주무주고혼을 천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구체적 규정과 형식을 갖춘 공식 의례였다.¹³⁾ 이 시기에는 국행수륙재와 더불어 개인적 성격의 수륙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선 중·후기는 억불숭유 시

4) 악도에 떨어져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망령에게 음식을 베푸는 법회.

5) 강호선(2010), pp.141-154.

6) 『高麗史』, 권26, “癸卯 始設大佛頂五星道場於三郎城假關, 凡四月”.

7) 『高麗史』, 권24, “命營假關於三郎城及神泥洞”.

8) 『高麗史』, 권10, “壬辰 普濟寺水陸堂火.先是, 嬖人攝戶部郎中·知太史局事崔士謙入宋求得水陸儀文, 請王作此堂, 功未畢而火”.

9) 강호선(2013), p. 220.

10) 같은 태조의 수륙재 설행에 관한 내용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수륙재’라 기록되어 있으며 권근의 『양촌선생문집』에는 ‘무차평등대회’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현행되는 수륙재 또한 ①망자의 정토발원 ②생자의 수복강령 ③이류중생의 발보리심 ④국운융창 기원 중 무엇을 주설편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륙재의 설행 목적을 어떠한 발원에 주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11) 『朝鮮王朝實錄』, 권5, “甲申/尹邦慶等投王氏于江華渡”.

12) 『朝鮮王朝實錄』, 권7, “上命設水陸齋於觀音堀, 見巖寺, 三和寺, 每春秋以爲常 爲前朝王氏也”.

13) 강호선(2017), p. 493.

기로 유가의 반발로 국행수륙재가 폐지되고 사찰 중심이나 사회대중에서 자생적으로 수륙재를 설행되었다.¹⁴⁾ 이 형태가 현재 가장 많이 설행되는 수륙재 형태이나 불교의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연 1-2회 각 지방에서는 자생적 수륙재보다 조금은 규모가 큰 의식행사를 열 수 있게 되었다.

2. 지리적 특성

미추홀(彌鄒忽), ‘매소홀(買召忽)’, ‘소성(邵城)’, ‘경원(慶源)’, ‘인주(仁州)’ 등 역사적으로 여러 지명으로 나타나는 인천¹⁵⁾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백제 시대부터 능허대(凌虛臺)를 통하여 대(對)중국 해상교류의 효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인천시 남구 옥윤동 해안(송도 조갯골)에 「능허대터」라고 하는 표석이 서 있는 소구릉이 있으니 이곳이 삼국정치시에 고구려에 의하여 조천로가 막힌 백제의 사신들이 범해하던 곳이라고 전하는 능허대인 것이다. (중략) 이곳이 인천부읍지 가 말하고 있는 「대진」(한나루라고 부름)으로서 소독은 선착장 구실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¹⁶⁾

17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강화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육·해군의 기지로 변모하면서 왕실의 보장처로 자리하였다.¹⁷⁾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장처의 수호보다는 외세의 진입을 차단하는 최전방 방어시설로서 기능하게 되었다.¹⁸⁾ 바닷길을 통한 쉬운 접근으로 인해 고려 후기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몽골과의 항쟁,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전투를 벌인 병인양요, 미국에 조선의 개항 거부로 저항한 신미양요, 일본의 강화도 앞바다 불법 침투로 발발한 운요호사건, 남북 6·25전쟁 등으로 수도 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투쟁이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해 인천 지역 안에서 수많은 희생이 자생되었음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부평구에는 인천임시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6,284명의 포로들이 수용되고 있었다.¹⁹⁾ 1953년 10월 19일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어떤 카메라맨이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38시간 항해에서 일어난 일들을 촬영했다면, 사탄조차도 그것을 보면서 분개했을 것이다. (중략) 3,000톤쯤 되어 보이는 화물선 속에 4500명의 포로가 탑승하였다. (중략) 삼 분의 이 정도 되는 포로들이 배로 들어갔을 때, 미군 경비들이 그들을 밀었다. (중략) 하지만 이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잭 나이프로 주위의 사람들을 찔렀다. (중략) 나는 첫 희생자의 날카로운 비명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 엎어졌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밟고 지나갔다.²⁰⁾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죽은 포로들은 바다에 그냥 던져졌다고 한다. 비록 적군일지라도 고향을 떠나 비명횡사한 젊은이들의 죽음은 안타깝기 마련이다. 이처럼 인천은 전쟁의 참화를 혹독하게 겪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지역이다. 이들 사건은 인천수륙재의 역사적 배경 외에 과거 인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바다와 육지에서 희생되었던 무수히 많은 존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의미로서 인천수륙재를 거행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 현시대의

14) 이기운(2015), p. 177.

15) 강옥엽(2015), p. 1.

16) 박광성(1974), p. 35.

17) 강옥엽(위의 논문), p. 4.

18) Ibid.

19) 전갑생(2020), p. 233에서 재인용.

20) 전갑생(위의 논문), p. 235쪽에서 재인용.

수륙재 의미는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²¹⁾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인천의 지리적, 역사적 맥락에서 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수륙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Ⅲ. 염불과 화청의 형태

1. 고성염불과 간성(間聲)

범패는 우리나라의 3대 성악곡 중 하나로 일정한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선율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인천수륙재의 예능보유자인 박일초스님 범패소리의 고유한 특징은 고성염불(高聲念佛)과 범패 선율을 6음으로 하여 그 소리가 화려하고 웅장하여 예술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일초스님의 범패가 고성염불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소리가 크다는 의미로의 고성이며, 두번째는 성음 자체가 높다는 의미이다.²²⁾

불교의식문 『석문의범』에는 ‘고성염불십종공덕’이라 하여 큰소리로 염불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 열 가지 공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성염불십종공덕(高聲念佛十種功德)

1	일자공덕능배수면(一者功德能排睡眠)	첫째 졸음을 쫓아내는 공덕
2	이자공덕천마경포(二者功德天摩驚怖)	둘째 마구니가 놀라 달아나는 공덕
3	삼자공덕성편시방(三者功德聲遍十方)	셋째 시방에 염불소리가 퍼져나가는 공덕
4	사자공덕삼도식고(四者功德三途息苦)	넷째 중생이 삼악도의 고통을 쉬게 하는 공덕
5	오자공덕외성불입(五者功德外聲不入)	다섯째 외부소리가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공덕
6	육자공덕염심불산(六者功德念心不散)	여섯째 염불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공덕
7	칠자공덕용맹정진(七者功德勇猛精進)	일곱째 용맹정진을 이뤄가는 공덕
8	팔자공덕제불환희(八者功德諸佛歡喜)	여덟째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공덕
9	구자공덕삼매현전(九者功德三昧現前)	아홉째 삼매의 경지가 앞에 나투는 공덕
10	십자공덕왕생정토(十者功德往生淨土)	열째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

『불설인연승호경』에서는 비구의 범패소리를 들은 선인들이 성품의 공(空)함을 깨닫고 출가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한다는 내용이 있다.²³⁾ 고성염불의 공덕이 행하는 이에게 선과(善果)를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행하는 이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동참대중 및 소청된 영가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박일초스님은 성음의 높이가 일반적인 남성의 청보다는 높아 다각적인 장점을 지닌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교육하기 좋은 음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저음부터 고음까지 음역의 폭이 넓어 그 범패소리는 가히 화려하고 유연하다.

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8804&cid=46648&categoryId=46648> (검색어: 수륙재).

22) 심효섭·한정미, (위의 책), pp. 30-31.

23) 『佛說因緣僧護經』卷1 (大正藏 권17, 568上), “加趺而坐。於初夜中, 伏滅五蓋; 中夜眠息; 後夜端坐, 高聲作呪。時諸仙人聞作呪聲, 悟解性空, 證不還果, 見法歡喜, 詣沙門所, 頭面作禮, 請祈沙門, 受三歸依, 於佛法中求欲出家。爾時, 僧護比丘即度仙人, 如法出家, 教修禪法, 不久得定, 證羅漢果, 如栴檀栴[5]檀圍繞, 得道比丘賢聖為眾。”.

저음과 고음 사이에 들어가는 소리를 중성 또는 간성이라 하는데 박일초스님의 범패소리는 이 간성을 비음(鼻音)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비강의 공명은 성대의 진동으로 인해 생겨난 아주 작은 소리를 울림이 커지게 하고 배음을 첨가하여 소리의 크기와 아름다움이 증폭되는 특징이 있으며 공명된 소리에 초점이 생기게 한다.²⁴⁾

심효섭·한정미²⁵⁾는 박일초스님의 범패소리를 우리가 울리는 것과 같은 심원성(深遠聲)을 지녔으며 짙는 소리 가운데도 글자를 명확히 하여 교의를 알게 하는 역료성(易了聲)이 조화롭게 아우러진다고 표현하였다. 간성에서 쓰여지는 비강을 통한 발성과 선율의 시김새가 바로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범패만이 갖는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2. 화청의 간접화법적 묘출

불교의 재의식 안에서 화청은 ‘축원화청(祝願和請)’과 ‘화청’ 두 종류가 있다.²⁶⁾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후자인 화청으로 재의식의 말미에 불려지는 순우리말 가사로 된 음악으로 한자로 구성된 범패의 가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화청은 창자마다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설을 지어 부를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 있지만²⁷⁾ 보편화 된 형식의 가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창자마다 특별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인천수륙재 범패·작법무 예능보유자 박일초스님의 화청은 경제범패의 틀은 유지하지만 가사와 전달력이 일반 경제범패의 화청과 차이를 보인다. 경제범패의 표준화된 화청 가사와 박일초스님의 화청 가사를 비교하여 인천수륙재만이 갖는 화청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사의 채집은 일반 경제범패 화청과 박일초스님의 화청 모두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채집하였다. 다음은 현행되는 보편화된 경제범패의 화청 가사이다.

아-지심결청 지심결청 일회대중에 일심봉청 (중략) 염불이라고 따로없고 착한맘도 염불이요 순한맘도 염불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일가친척에 화목하고 동기간에 우애있고 처자권속을 사랑함도 염불이요 탐심덜어서 보시하고 시주함도 염불이요 염불하면 불법이요 불법하면 요순인데 요순노탕 문무주공 삼강오륜의 팔조목은 금시태평에 있는거요 내맘내뜻 나의잘못을 모르거든 남을보아서 깨칩소사 나아무우 일심봉청 또오한말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달을 눈먼사람이 어찌볼까 지공우사 밝은달은 높은산에 먼저 돋고 대자대비 부처님은 정성시주를 먼저보네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감응이라 무량무변 세계계중 에도 극락세계가 제일이요 극락세계라 하는곳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진심으로 마음뉘야 염불하시면 너도나도 차별없이 임의자재로 들어가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이 수양하며 생노병사가 전혀없는 불생불멸 하신다니 극락세계가 제일이요²⁸⁾

일반적인 경제범패의 화청 가사는 영가에게 전해주는 법문의 형식으로 주로 전반부에는 불·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며 중반부에는 인과법과 세월의 무상함을 설하고 후반부에는 극락의 모습을 극락의 모습을 묘사하고 발원하는 대목으로 구성된다.

24) 송주병(2010), p. 15.

25) 심효섭·한정미(위의 책).

26) 장휘주(2006), p. 126.

27) 손인애(2013), p. 68.

28) 최원희(2003), pp. 66-73.

반면, 박일초스님의 화청은 후반부에 주로 간접화법적 특성을 띤다. 박일초스님의 화청가사 중 일부를 채집해 보았다.

아-지심결청 지심결청 일회대중에 일심봉청 (중략) 금일 영가 ○○○씨 ○○영가 금일제사를 받으시고 극락세계로 가실적에 이자리에 동참하신 행효자 ○○○, ○○○등 일문 자제의 손을잡고 만담설화 하는말씀 나는간다 나는간다 극락세계로 나는가니 이한평생 살아가며 형제자매는 우애있고 인척간에 화목하고 한분뿐인 너의엄마 공경히 잘모시고 부디부디 잘살거라 나는간다 나는간다 이자리에 동참하신 일문가문의 손을잡고 만담설화 하는말씀 어찌가오 어찌가오 눈물이가려 어찌가나 이한평생 사랑하며 어젯날 한날 한시에 죽자살자 그언약을 뒤로하고 이내먼저 떠나가니 부디부디 잘사시오 나는가오 나는가오 이자리에 동참하신 일문친지 여러분들 양어깨를 부여잡고 만담설화 하는말씀 못가겠네 못가겠어 눈물이가려 어찌가나 고맙구려 고맙구려 생전에 맺은정을 잊지않고 찾아주니 나는가오 나는가오 극락세계로 나는가니 부디부디 잘사시오²⁹⁾

박일초스님의 화청 가사는 전반부와 중반부에 경제범패 화청의 전·중·후반부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후반부에서 주로 간접화법적 가사가 묘출된다. 이러한 구성은 청중의 쉬운 이해와 더불어 영가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간접화법적 가사로 청중의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킨다. 경제범패 어장 중 유일한 형태의 화청으로 인천수륙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IV. 작법무의 전승 양상

1. 춤사위의 특징

해상도시와 더불어 어업 도시이기도 한 인천은 수륙재의 춤사위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난다. 인천수륙재의 작법무 춤사위는 지역적 특색인 해풍(海風)을 연상시키는 장삼자락의 움직임이 특징이다. 나비춤의 경우 ‘아-헤’ 동작이 대표적이다. 경제범패의 중심지인 신촌 봉원사의 ‘아-헤’ 동작의 경우 양쪽 팔을 접어 장삼 자락이 땅에 닿으면서 움직임이 멈추는 형태가 나타난다.

〈사진 1〉³⁰⁾



29) 2023년 6월 2일 채보. 통상적으로 4-5자의 가사를 한 음절로 배치하므로 띄어쓰기는 생략함.

30) 신촌 봉원사의 ‘아-헤’ 동작(2022년 6월 6일 촬영).

반면 인천수륙재의 ‘아-헤’ 동작의 경우 양팔을 벌려 한쪽 손으로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이다 동작의 끝머리에 미세한 악센트를 주어 들고있는 꽃 또는 손끝이 쳐지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악센트의 반동으로 장삼자락이 찰랑이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형태의 동작으로 나타난다.

〈사진 2〉³¹⁾



나비춤의 사방요신 동작 또한 지역적 특색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사방요신는 주로 요잡바라와 함께 어우러져 설행된다. 인천수륙재의 사방요신 동작은 양팔을 벌려 견갑골을 당겼다 밀었다를 반복하며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마치 바다의 잔잔한 파도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띤다.

〈사진 3〉³²⁾



소리보다 춤사위가 먼저 끝을 맺거나 춤사위가 소리보다 먼저 끝을 맺는 타지역의 나비춤과 다르게 인천수륙재의 나비춤은 소리와 동작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특징이 있다. 나비춤과 마찬가지로 바라춤 역시 지역적 특색과 습합되어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장삼 자락의 움직임이 연출된다. 인천수륙재의 바라춤은 하체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바라를 올리고 돌리는 동작 외에 넓게 펼치는 동작, 회오리를 연상시키는 동작, 바라를 수직으로 돌리는 동작 등 다양한 응용동작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31) 인천수륙재의 ‘아-헤’ 동작(2023년 5월 14일 촬영).

32) 사방요신.

〈사진 4〉³³⁾



2. 작법무의 보존성

인천수륙재는 작법무의 보존성이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작법무에서 바라춤은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명바라·관옥계바라·화의재바라·내림계바라·요잡바라 7종 정도로 보존되고 있지만 인천수륙재에서 보존되고 있는 바라춤은 10종으로 위의 7종 외에 오방잡과 회향성바라, 정로진언바라가 함께 보존되고 있다. 인천수륙재의 나비춤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시된 18종의 작법무 중³⁴⁾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2종을 제외한 16종 모두가 보존되고 있다. 법고무 역시 일반적으로 개법고(예법고)만이 통상적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 반면, 인천수륙재에서는 개법고·산법고·회법고 3종의 법고춤이 보존되고 있다.

1) 오방잡

오방잡은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륙재의식 중 2번내지 3번 선행되는 바라춤이다. 오로단과 신증작법 또는 신증대례에서 104사위 신증 후에 선행하며 도량의 수호를 위해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신증(神衆)과 팔보살을 정중히 청해 모시는 의식이다.³⁵⁾ 중앙에는 쌍나비춤³⁶⁾이 배치되며 나비춤을 둘러싼 사각형 모양의 대형에서 모서리 부분마다 각 한 명씩 사방에 바라춤이 배치된다.

중앙의 나비춤은 중앙에서 두 사람이 마주 보고 계속 교차하며 사방에서 바라가 올릴 때마다 양손을 코앞에 포개는 동작인 화수를 쳐주는 형식이다. 사방에 배치된 바라춤은 서로 교차하며 자리를 이동하여 모두가 동·서·남·북의 방향에서 바라를 5번 올리고 5번 돌리는 동작을 한 번씩 취한 뒤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 한다. 총 네 번의 교차가 있으며 5세트³⁷⁾의 바라춤이 선행된다. 오방잡의 반주는 특별한 진언이나 계송 없이 법구(法具)³⁸⁾의 반주에 맞춰 진행된다.

33) 저자 외 인천수륙재 보존회 회원들의 사다라니 바라춤中.

34) 법현(1997), p. 22.

35) 박지연(2012), p. 18.

36) 두 명이 마주 보고 추는 나비춤.

37) 인천수륙재의 요잡바라춤은 통상적으로 7번 올리고 7번 돌리는 동작을 한 세트로 간주하나 오방잡에서는 5번 올리고 5번 돌리는 것을 한 세트로 함.

38) 태정·호적·북·목탁 등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들.

〈사진 5〉³⁹⁾



2) 회향성바라

회향성바라는 영산재나 수륙재와 같은 규모가 큰 재에서 ‘옴 아아나 삼바바 바이라 흙’ 보공양진언과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다 사라마하 자가라바 흙’인 보회향진언에 맞춰 선행된다. 본래 의식이 끝난 후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 회향놀이를 할 때에 선행하던 의식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회향놀이의 형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현재는 영산재나 수륙재의식의 말미에 마지막 회향을 알리는 작법으로 행해진다.

일반적인 바라춤의 동작이 포함되긴 하지만 기존에 많이 알려진 바라춤과는 동작의 형태가 확연히 다르며 선행 인원은 3-4명으로 많지 않게 구성된다.

3) 정로진언바라

정로진언바라는 ‘옴 소싯지 나자리다라 나자리다라 모라다예 자라자라 만다만다 하나하나 흙 바탁’ 진언에 맞춰 바라춤을 춘다. 유일하게 인천수륙재 상상단 관불의식에서만 행하는 작법무로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을 관불장소로 이운해 모실 때 선행한다. 정로진언바라는 박일초스님이 인천지역의 수륙재를 공부하며 박법운스님께 직접 사사했다.⁴⁰⁾

4) 삼남태작법

삼남태 작법무는 ‘옴 아라남 아라다’를 세 번 반복하는데 처음 ‘옴 아라남 아라다’와 두 번째 ‘옴 아라남’까지만 짚소리로만 집전을 하고 남은 ‘아라남’과 마지막 세 번째 ‘옴 아라남 아라다’ 소리에서 나비춤이 함께 시연된다. 그 뜻은 시방법계를 깨끗이 하고 청정하기를 서원하는 작법무이다. 행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이 진언을 함께 독송하며 자신들의 마음 또한 맑고 깨끗하게 하여 여래의 참뜻을 받들어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삼남태작법은 이론상으로는 그 형식이 전해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선행되는 것을 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삼남태작법에 대한 선행연구⁴¹⁾에서 삼남태작법은 ‘설법의식’ 시 거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되고

39) 제19회 인천수륙재 中 오방잡 시연.

40) 박일초스님 대담. 2023년 7월20일.

있는 의식 중 홀소리나 짝소리와 같은 소리로 구성된 진언들은 재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⁴²⁾ 인천수륙재의 경우 삼남태작법을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가 영험한 신앙의 대상물이 되도록 신성을 불어넣기 위한 의식인 점안식⁴³⁾ 중 조전점안⁴⁴⁾ 시작 부분에 선행한다. 삼남태작법을 선행시에는 천수경을 생략하고 조전점안 의식을 이어갈 수 있으며 삼남태작법 생략시에는 천수경을 한 뒤 의식을 이어갈 수 있다.

5) 대각석가존작법

불교의 천도재 의식 중 큰 재에서 마지막 육법공양 의식을 집전할 때 시연하는 작법으로 '대각석가존 유원자비 애강도량 수차공양'을 부르는 범패에 맞춰 선행한다. 향(香:해탈)·등(燈:반야)·다(茶:감로)·화(花:만행)·과(果:보리)·미(米:선열)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며 육바라밀 행을 실천하여 성불을 이루겠다는 서원과 약속의 뜻으로 재삼 간절히 받아주시길 소리와 작법으로 간청드리는 나비춤이다.

6) 산법고·회법고

경제범패 전반에서 현행되고 있는 법고춤은 개(開)법고 또는 예(禮)법고라 불리는 법고춤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의식에서 법고춤이 선행되는 부분에는 1종의 법고춤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수륙재의 경우 법고춤에는 펼친다는 의미의 산(散)법고와 닫는다는 의미의 회(回)법고를 추가적으로 전승·보존하고 있다.

의식의 전개에 맞게 법고를 배치하여 의식의 시작인 시련에서는 개법고를 상단에 공양을 올릴 때나 신중을 청할 때는 산법고를 선행한다. 회법고는 의식을 모두 마친 뒤 진행되는 회향놀이나 인천수륙재에서 행해졌던 길가름 의식을 할 때에 선행 되었던 법고춤이나 현시대에는 회향놀이나 길가름 의식의 풍토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식의 말미인 회향의식을 하는 절차에서 회법고를 선행한다.

V. 결론

인천수륙재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박일초스님의 보유 종목만이 띄고 있는 범패와 작법무의 특징과 작법무의 보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박일초스님의 범패와 작법무의 가장 큰 강점은 인천광역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나비춤과 제15호 인천수륙재 두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범패와 작법이 수륙재라는 특정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수륙재는 삼랑성(강화)에서 열린 대불정오성도량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해상교류의 효시로서 역할을 한 반면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

41) 한정미, 「佛像點眼儀式에 관한 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한정미, 「불교의식의作法舞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심상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42) 한정미(2014), p. 109.

43) 사찰을 새로 지어 불상과 같은 것들을 사찰 내에 정식으로 안치시킬 경우 또는 불상, 불화, 불탑 같은 것들을 새로이 만들었을 경우 행하는 의식.

44) 엽전 모양의 종이돈을 부처님 가피력을 통해 명부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변환시키는 의식.

많은 희생자를 낳은 도시이기에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혼과 아귀를 달래는 의식’이라는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수록재라는 의식은 인천지역에 자리 잡기 적합한 요건이 되었다.

둘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제10-2호 범패·작법무, 제15호 인천수록재) 예능보유자 박일초스님의 범패는 성음이 높고 우렁차며 일반범패의 5음에 간성을 더해 화려하고 유연하다. 화청의 경우 화청 가사는 전반부와 중반부에 경제범패 화청의 전·중·후반부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후반부에서 주로 간접화법적 가사가 묘출된다. 이러한 구성은 청중의 쉬운 이해와 더불어 영가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간접화법적 가사로 청중의 감정이입을 극대화 시키는 독자적 특성을 갖는다.

셋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제10-2호 범패·작법무, 제15호 인천수록재) 예능보유자인 박일초스님의 작법무는 그 몸짓에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다. 하체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응용동작, 넓은 장상자락의 섬세한 움직임까지 고려하여 모든 작법무가 전개된다.

넷째, 인천수록재는 소실된 작법의 보존성이 매우 높고,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작법무가 존재하는 점에서 타지역과 차별성을 보인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작법무는 바라춤 10종, 나비춤 17종, 법고춤 3종으로 타지역에 비해 다양한 작법을 보존·전승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수록재는 지역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의식이자 예능보유자의 오랜 수행력과 경험으로 불교의식에 대한 모든 범패와 작법무를 폭넓게 전승·보존할 수 있다는 특수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불교의식의 종교 수행과 문화 전승의 두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점으로 평가된다.

3일 밤낮으로 72시간 동안 설행되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현행의 불교의식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신도의 세대가 바뀜에 따라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의식의 소요 시간이 줄어들면서 범패와 작법무가 의식에서 생략되기 시작하여 그 형태를 적지 않게 잃어가고 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인천수록재의 범패와 작법무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불교의식이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수록재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작법들이 과거에 현존하였으나 전승의 맥이 끊긴 것인지, 지역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원전류

- TD : 佛說因緣僧護經
- 高麗史
- 朝鮮王朝實錄

단행본 및 논문

- 심호섭·한정미(2022). 『인천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2호 범패와 작법무(나비춤)』, (주)나옴커뮤니케이션즈, pp.30-31.
- 최원허(2003). 『齋儀式』, 현세대, pp.66-73.
- 법현(1997). 『영산재 연구』, 서울: 운주사, p.22.
- 강옥엽(2015). 「인천의 역사와 문화」,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p. 1, p. 4.
- 강호선(2010). 「宋元代 水陸齋의 성립과 변천」, 『역사학보』 206호, 2010, pp.141-154.
- 강호선(2013). 「고려시대 水陸齋의 전개와공민왕대 國行水陸齋설행의 의미」, 『불교연구』 38호, 한국불교연구원, p. 220.
- 강호선(20147).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493.
- 박광성(1974). 「凌虛臺에 對하여」, 『기전문화연구』 4권, 인천: 인천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p. 35.
- 박지연(2012). 「바라춤 연구 -인천수륙재의 바라춤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18호,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p. 18.
- 손인애(2013). 「불교음악 <화청>의 음악적 연구 - 서울, 경기일대(경제) 소리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사학보』 50권, 한국음악사학회, p. 68.
- 송주병(2010). 「성대 구조의 이해 및 발성 시 차지하는 호흡과 공명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45권, 서울: 한국음악학회, p. 15.
- 이기운(2015). 「조선후기 수륙재의 설행과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편찬 의도」, 『佛敎學報』 73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 177.
- 장휘주(2006). 「화청의 두 유형: 축원 화청과 불교가사 화청」, 『이화음악논집』 10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p. 126.
- 전갑생(2020). 「한국전쟁기 인천지역 포로들, 강요된 자유 : 희귀 사진으로 살펴본 인천포로수용소」, 『작가들』 74호, 인천작가회의, pp. 233-235.
- 한정미(2014). 「佛像點眼儀式에 관한 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109.

웹사이트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8804&cid=46648&categoryId=46648> (검색어: 수륙재)(2023년 5월 22일 검색)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7710&cid=46655&categoryId=46655>(검색어: 인천수륙재)(2023년 6월 2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Traditional Values of Beompae·Jakbeopmu in Incheon Suryukjae

Woo, Sanghee

Ph.D. student, Nungin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lore values of Monk Park Il-cho, the holde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Intangible Cultural asset(No.10-2).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Suryukjae, and then examines the lore value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asset such as Beompae, Jakbeopmu and Incheon Suryukjae. Finally, during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proces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Intangible Cultural asset, I will examine the high preservation of the special Jakbeopmu that has been lost in the current era or is performed only in Incheon Suryukjae.

The artistic holder of Incheon Suryukjae is Monk Ilcho Park. In 2002, he was designated as Inch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asset. Contribute to training and continue activities. It is the characteristic and advantage of Park Il-cho that the area that can deal with Beompae and Jakbeopmu is not limited to Suryukjae because it has two events, but it can also accommodate Yeongsanjae, Siwanggakbaejae, and Sangjugwongongjae.

Based on this, the background and situation in which Suryukjae took its place in the city of Incheon, and the ascetic practices and power of Monk Park Il-cho, which have been passed down and preserved in it, are melt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assets. I would like to introduce and discuss the lore values of the beompae and jagbeopmu that are shown.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s based on these studies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ctive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Incheon in the academic worl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Beompae, Jakbeopmu and Incheon Suryukjae are colorful but free-of-charge Beompae with the unique voice of Monk Park Il-cho and the dance of Jakbeopmu reminiscent of the sea breeze, which is a regional characteristic. In particular, the preservation power of special dances that have been lost or cannot be found in other regions, other than the commonly performed dances, is quite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value of preserv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Korean Buddhist rituals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Keywords : Buddhist rituals, Incheon Suryukjae, Beompae, Jakbeopmu, Hwacheong

투고 일자 : 2023년 8월 09일

심사 완료 : 2023년 8월 14일

게재 확정 : 2023년 8월 14일

식민도시 '제물포' 풍경의 안과 밖

: 1920~40년대 '인천' 시편을 중심으로

최 현 식*

1. 식민도시 '제물포'의 장소성을 읽는다는 것
2. 장래 유학생 김소월의 시선, '진센'-'제물포'의 균열
3. '실심'한 '점경'의 '이국정조', 고독한 '이방인'의 '제물포'
4.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인천항, '비애'와 '절망' 무역의 '항구'
5. 결론을 대신하여: 해방기 '인천항'의 잔영

국문요약

이 글은 1920~40년대 '仁川 濟物浦'의 '장소성'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다. 필자는 '仁川 濟物浦'를 '진센 제물포'로 읽었다. 인천의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제의 폭력성과 조선의 궁핍화 현상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모순적인 '진센 제물포'는 그곳에 기이한 이국정조와 타자화된 풍경을 끊임없이 확장해 갔다. 이 부정적 현상을 성찰하기 위해 조선의 시인들은 방문객 특유의 '관찰자의 시선'과 배역을 빌린 '체험의 대리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진센 제물포'의 풍경에서 '장소 상실'의 면면이 크게 드러났다. 또한 그에 반하는 '진정한 장소'로의 회귀 욕망도 더욱 커졌다. 김소월은 '진센 제물포'를 대상으로 이별과 비애의 정서를 깊이 있게 드러냈다. 정지용과 김기림은 외부의 시점으로 '제물포'의 고독과 슬픔을 날카롭게 묘사했다. 박팔양은 '인천항'에서 유랑과 망명, 추방의 비정함을 발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지향을 강화했다. 오장환은 '진센'의 힘센 타자에 포위된 '제물포(사람)'를 구제하기 위해 역설의 방법을 활용했다. 방탕한 생활에 빠진 뱃사람과 매음녀를 등장시킴으로써 식민 항구의 퇴폐성을 고발했다. 또 그림으로써 더 나은 삶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호소했다. 이상의 예술화 과정들을 통해 '仁川 濟物浦'는 조선 고유의 향토로, 또 건강한 생활인의 진정한 장소로 다시 돌아갈 희망을 얻게 되었다.

주제어 : 인천, 제물포, 진센, 일제, 식민지 조선, 장소성, 관광의 시선, 김소월, 정지용, 박팔양, 김기림, 오장환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식민도시 '제물포'의 장소성을 읽는다는 것

1883년 척박한 개항 당시의 한적한 어촌 '제물포'의 모습과,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의 5대 도시이자 제2의 항구로 성장해 가던 무렵의 '인천' 풍경을 일본인이 집필한 『인천부사(仁川府史) 1883~1933』는 이렇게 적고 있다.

장면 ① : (1883년(明治16年) 개항 당시: 인용자) 각국 거류지가 있던 저지대는 노추(蘆葦)가 울창하고 음습한 습지가 많고 때로는 월미도의 동단 또는 만석동 해변의 어부 집에서 가는 갈대의 이슬이 피어오르는 듯이 보였고, 「아리랑」의 절절한 애조를 듣는 것 외에는 말 그대로 만목소조(滿目蕭條)인 무인의 산야이고, 사람과 말의 왕래, 선박의 출입은 전혀 없었다.

장면 ② : 1932년(昭和7年) 11월 경인간에 운용되는 경인간 쾌속열차가 1일 13회 왕복으로, 그 1회의 소요 시간은 50분 내지 59분(최단 시간의 경우, 인천→경성 52분에 대하여, 경성→인천의 경우는 50분간)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¹⁾

장면 ①에서 장면 ②로의 변화는 1933년 인천부윤 마츠시마 키요시(松島清)가 인천, 특히 '제물포' 일대를 두고 개항 당시 어떤 부락도 없었던 일개 해변에서 “조선 내 제5의 대도시로서 인구 7만”을 헤아리고, “조선 내 제2의 큰 무역항으로” “무역 연액 1억 3천만엔”(『인천부사』, 14면)에 달하는 성황을 보이는 중이라고 자화자찬할 만한 식민지 근대화의 제일 증빙자료라 할 만하다. 조선의 '제물포'와 일제의 '진센(仁川)' 간 미개-야만과 문명-진화의 구분은 식민지기 내내 개항장을 휩쓰는 식민주의적 담론의 하나였음은 다음 연작시의 대조적 형상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길가에는 띠풀로 지붕을 이은 집들이 줄지어 있어, / 멀리서 바라보니 연달아 있어 달팽이집과 같구나”와 “배가 해문(海門)에 들어오니 사람들은 환호하고, 일장기는 아침 햇살에 번쩍인다”(『일본영사관』)가 그것이다.

문제는 일제의 '우승'과 조선의 '열패'를 획정짓는 저 시와 산문들이 근대천황제가 내세운 팔괘일우(八紘一宇) 및 충량한 신민들의 천황에 대한 멸사봉공의 정신에서 발화한 식민주의적 (무)의식의 소산이라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진중(珍重)한 우리 국민 충후(忠厚)한 기운으로, 공원에서 먼저 태신궁(太神宮)에 제를 올린다”(『공원』)라는 시구(詩句)가 그렇다.²⁾ 사실대로 말해 내지(内地)인들은 그제 정부의 공무든 개인적 여행이든 식민지 조선과 만주, 대만에 도착하면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천황가의 위패를 봉안한 신사(神社) 참배에 나섰다. 나라의 “충후한 기운”과 천황의 영원함을 영원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개인의 안녕과 조국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신성한 제국을 앞세우는 일개 신민의 충성심은 무엇보다 절대군주라는 천황상의 확립과 천황 통치의 불가침적 성격을 구조화하는 데 꼭 필요했던 ‘황도주의(皇道主義)’의 각인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³⁾ 일본인들은 이때 형성된 ‘국민’, 곧 ‘신민’ 의식을 토대로 자신들이 일본의 외지와 이민족을 자기의 산하에 넣은 ‘제국’이 되었다는 열강 의식과 승전의 감각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다. 이 지점에서 조선과 만주를 미개와 야만의 땅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의 윤리와 의무를 그 붉은 땅[赤土]들의 개척과 경영에 두는 식민주의적 ‘보는 주체’의 시선과 태도가 생성되고 확장되었다.

1)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부사(仁川府史) 1883~1933』, 2004, 142면 및 853면. 이후 이 책 인용 시 본문에 「『인천부사』, 124면」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2) 예시한 한시들은 인천전환국의 직원이던 요코세 후미히코(横瀬文彦)가 지은 것이다. 그는 인천 관련 한시 40편을 지어 1893년 오사카에서 발행된 『인천잡시(仁川雜詩)』에 실었다. 한시 전문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희환,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 작가들, 2010, 43~46면 참조.

3) 이권희, 『국가와 교육: 메이지 국민교육사』, 케포이북스, 2017, 27면.

그러므로 예의 장면들은 ‘제물포’의 개항과 발전이 조선인 대상의 삶과 생활의 개선을 최종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어렵잖게 알려준다. 그렇기는커녕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제국”과 천황제 중심의 “제국의식”을 충족하기 위한 식민주의적 팽창(침략)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⁴⁾ 그러나 일제는 ‘진센’의 강제 개항에서 그 폭력성과 침략성을 기꺼이 은폐하며 “숨겨진 나라-hermit kingdom- 조선으로 하여금 명량한 국제 관계의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게 하고 은둔한 생활을 하는 국민들-hermit nation-로 하여금 넓게 활동하는 활동국민으로의 전환”(『인천부사』, 122면)을 가져온 일대 사건, 아니 천황의 거룩한 은뢰(恩賴)로 지시하고 가치화하는 식민주의적 당위성의 논리를 잠시도 잊지 않았다.

조선의 ‘제물포’ 시(인)를 먼저 말하지 않고 일제의 ‘진센’에 대한 산문과 시를 앞세운 까닭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이 여행이든 아니면 승전지의 답사든 타향 또는 낯선 곳을 응시하는 주체의 눈길에 담기기 마련인 ‘관광의 시선’을 인천과 제물포 관련 시편들에서 입체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존 어리에 따르면, 관광의 시선은 “어떤 능력감, 즐거움, 그러한 체험의 구조를 제공하면서 ‘타자’와 방문객의 만남을 조직화”한다. 물론 이때의 시선은 계급, 성별, 민족성, 연령, 이념 등에 따라 구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객이나 타자들 서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차이’를 만들어 내며 그것을 구조화한다.⁵⁾

이를테면 일본 지배층은 ‘진센’을 “활동국민”의 신개지(新開地)로 가치화했다. 그러나 조선인 기자는 ‘인천’을 “참담한 빈민굴”⁶⁾로 부르며 분노를 토해냈다. 이러한 공간적 성격의 구별은 제국과 식민지 간 현장 인식의 차이에 서만 불거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仁川’(인천≠진센)에 대한 과거와 현재, 기억과 사실 따위가 윤색, 삭제되거나, 과장, 반복되는 술하고도 오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관광의 시선』, 310면), 다시 말해 거칠되 기이하게 뿌리내린 심상지리와 영토적 환영(幻影)이 각인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타자의 시선인 동시에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구성하는 방문자의 목소리와 정서는 그들이 찾아가는 곳을 영원한 고향과도 같은 ‘진정한 장소’로 발명할 수 있다. 정반대로 그저 “평범하고 특징이 없으며, 놀랄만한 것”⁷⁾ 하나 없는 ‘무장소성’ 또는 ‘장소 상실’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거나 추락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활 현실과 사상·이념의 흐름 모두에서 전형기에 던져진 상황의 1930년대 조선시단에서 ‘제물포’는 어떤 ‘관광의 시선’을 입고 있으며 어떤 ‘장소성’을 부여받고 있을까. 그 전사(前史)를 살펴본다는 뜻으로 1920년대 김소월과 박팔양의 ‘제물포’를 엿갈려 읽을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시단의 중심에 섰던 정지용과 김기림, 오장환의 ‘제물포’를 다시 보아가 볼 생각이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는 하나인 ‘제물포’가 문학 공간 속에서는 어떻게 다양화 되고 분산되는지, 또 어떻게 갈등하고 균열된 끝에 작은 희망을 내걸 수 있는 ‘내일의 땅’으로 접속되고 통합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이 단락에서 언급된 일본의 만한(滿韓) 진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리야마 테루오[有山輝雄], 조성운 외 역, 『시선의 확장: 일본 근대 해외관광여행의 성립』, 선인, 2014, 49~55면 참조.

5) 존 어리·요나스 라슨, 도재하·이정훈 역, 『관광의 시선』, 소명출판, 2021, 16~17면. 이후 이 책의 인용 시 본문에 ‘(『관광의 시선』, 16면)’이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6) 편집부, 「조선인의 만호(萬戶) 인천부(仁川府)는 참담한 빈민굴」, 『조선일보』, 1932.1.29.

7)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69면. 이후 이 책의 인용 시 본문에 ‘(『장소와 장소상실』, 269면)’이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2. 장래 유학생 김소월의 시선, '진센'-'제물포'의 균열

한반도, 곧 식민지 조선의 관문 부산항을 바로 뒤쫓는 국제적 무역항으로 성장했으며, 경인 쾌속열차가 매일 13회 운행할 정도로 번성하게 된 '진센-사이뭇보', 조선말로 '인천-제물포'를 바라보는 "참조선인"들의 감정과 소회는 어땠을까. 1933년 개항 50주년을 맞이하여 "황망(荒茫)한 어촌 '제물포' 지금은 변화한 대도시"⁸⁾ 운운하는 찬가가 언뜻 눈에 띈다. 조선인들의 내면을 입체화하고 예각화하기 위해 '인천-제물포'의 이름과 풍경에 앞서 일제가 호명한 '진센-사이뭇보'의 그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 '장소성'의 성격을 먼저 특징지어 본다.

1934년 한 신문은 "대인천"이라는 명명 아래 그곳을 "황료(荒寥)한 일어촌(漁村)"에서 조선 최고의 "유일한 개항장"이자 "수부 경성의 인후지(咽喉地)로 올라선 도시로 높이 샀다. 그러면서 '인천'이 지리적·역사적·정치적·외교적·군사적인 행동 다방면에서 세계사적인 주목을 끌고 있노라고 적었다.⁹⁾ 이 개척과 발전 도상의 공간은 조선(인)에게는 '제물포'가 훨씬 낮익었지만 일제(신민)에게는 처음부터 '진센'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식민도시'의 공간성에 깊이 포획되고 있었다. 물론 조선 기자는 "대인천의 건설", 곧 노동자와 품팔이 등 하층의 조선인과 관료와 상공인 중심의 일본인이 차별받지 않는 '제물포-진센'을 바라는 뜻에서 '인천'의 세계사적 위상을 특별히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인천' 운운은 일제 식민주의가 선점한 '획일적 상품'과 그것의 '생산·유통 공간'으로서의 자본과 군사, 권력 중심의 균질적·폭력적 장소성에 대한 신중한 이해와 성찰을 괄호친 발언에 가까웠다.

이를테면 러일전쟁 당시의 군가집 『일로전쟁 대첩군가-해전의 권(日露戰爭大捷軍歌-海戰の巻)』은 일제의 앞선 문명과 군사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러일전쟁 발발 당시의 해전을 「진센카이센(仁川海戰)」이라고 불렀다. 또한 『만한철도창가(滿韓鐵道唱歌)』(1906)의 저자 오와다 다테기(大和田建樹)도 러일전쟁의 첫 포탄이 발사되었고, 일본인 12,000여 명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의 휴식처 "니혼코엔 갯비토(日本公園月尾島)"가 있던 그곳을 오로지 '진센'으로 부르고 표기했다. 이처럼 천황 신민의 안중과 언어에서는 조선인의 향토 '제물포'에 대한 존중과 애호의 염(念)이나 정서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식민주의적 권력과 자본, 그리고 기술을 앞세운 '진센' 만들기과 '참조선인'의 '제물포'에 대한 파괴와 삭제의 야욕만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제가 발명하고 조직한 '진센'은 식민주의를 앞세운 개성 없는 '획일성'과, 경제적·군사적·산업적 권력이 조선의 진정한 '장소성'을 억압하는 '무장소성'('장소와 장소상실', 235~236면)이 횡행하던 또 다른 의미의 '황료한 붉은 땅(赤土)'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사료가 조선(인)의 문헌이나 의견의 참조 없이 인천개항 50주년을 기념하고 그간 수행된 '진센'의 개척과 발전의 도정을 기록하고 선전하기 위해 편찬된 『인천부사 1883~1933』이다. 이 책은 〈목차〉부터 예외 없이 '진센'만을 호명하며, 개발의 역사와 근대화의 현황도 일본인 '조계(租界)', 곧 '거류지'에 초점을 맞췄다. '제물포'는 '축항(築港)의 전사(前史)로 두어 번 등장하며, '조선' 관련 사항도 일본 항목 뒤에 짧은 꼬리표로 달릴 뿐이다. 요컨대 일제(신민)에게는 개항과 상륙, 지배와 개척 상황 모두에서 드넓은 '진센'은 명목상이든 행정상이든,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조선적인 것'이 울울한 비좁은 '제물포'를 압도하는 휘황한 식민도시이자 자부심 웅장한 '권위적 장소'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근대천황제 권력에 기댄 '진센'은 조선인들에게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매우 폭력적인 '장소 파괴'의 현장(『장소와 장소상실', 242~243면)이었다. 예컨대 한 신문기자는 경성, 부산,

8) 편집부, 「인천개항 50주년 기념」, 『동아일보』, 1933.10.8.

9) 편집부, 「대인천 건설의 급무」, 『조선일보』, 1934.10.28.

대전, 대구, 평양, 신의주를 호명한 뒤 일제의 새 항구로 선택된 조선 전통의 “진남포, 제물포, 군산, 목포, 마산, 원산, 청진, 성진”을 나열한다. 그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조선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전기불이 켜지고 그 문 압해 자동차나 인력거가 노”인 신식 가옥의 일본인과 달리, “석유불의 연기와 내음새가 얼굴과 옷을 적시고” “그 문 압해는 해지고 다라진 집세기가 아니면 고무신의 잔해가 질서업시 흐터져잇”는 “왜소한 누옥(陋屋)에서 그 생(生)을 부치”며 살아가고 있다.¹⁰⁾ 이런 현실에서 잘 만들어진 식민도시의 파행적 이면을 탄식하며 그 ‘멸망’의 참상을 고발하거나 차별이 철폐된 진정한 ‘대인천 건설’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곳곳에서 출몰했는지라 “참조선인”들의 ‘제물포’를 위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장면 ③ : 축항(築港), 월미도의 낙원화, 각 공원 등 매거(枚擧)키 어려운 무수한 건물이며 시설이 보기 조케 되어 있다 만 그것이 엷든 제물포 그때가 참조선인의 인천이었다. (...중략...) 그러나 인천이 소위 생산화, 낙원화한다는 반면에 제물포 당시 듯지못하든 ‘군밤’ 장사나 ‘겐마이빵’ 장사가 느려감은 이 얼마나 괴이한 현상임을 말 아니 할 수 업다.¹¹⁾

장면 ④ : 내인거객(來人去客)의 상탄(賞歎)을 말지 않는 화려한 유원지대가 잇는 그 반면에 남녀노유(男女老幼)가 기한(飢寒)을 부르짖는 토막(土幕)살이의 촌락이 이스니 차(次)는 현 사회제도에 면치 못하는 현상이거니와 인천 ‘제일’ 살기 조타고 남부여대하고 차저온 민중이 과연 그 얼마이엇든가? 노동자의 인천이라고도 할수잇는 인천에 잇서 무엇보다도 공장의 설치가 다(多)하여야 할 것이며 시구(市區) 개선의 차별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¹²⁾

장면 ③과 ④에서 엿보이는 ‘진센’의 구석, 곧 저발전의 ‘제물포’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의 생활상은 인천 출신의 엄흥섭과 현덕, 관찰의 방문객 강경애와 이태준 등의 ‘리얼리즘 충동’을 통과하며 “인천의 이 새벽만은 노동자의 인천 같다”라는 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¹³⁾ 그들의 진보적 시선과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제각기 일터를 찾아키느라 분주”¹⁴⁾한 노동자들의 절망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차갑고도 뜨겁게 잡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시의 경우는 적어도 1930년대 이전까지 식민 항구 ‘제물포’의 찢기고 멎든 민낯을 아프게 들여다본 사례가 많지 않다.¹⁵⁾ 그 드문 시편을 거두어 지역적·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정리해 본다.

인천 태생의 고유섭은 ‘인천용리고생(仁川龍里高生)’이란 필자명으로 발표한 연시조 「경인팔경(京仁八景)」(『조선일보』, 1926.3.8)을 통해 인천과 경성을 오가며 느낀 소회를 남겼다. 시조라는 장르적 한계 때문인지 “만뢰가 적요컨만 수레소리 요란하”며 “차중정화(車中情話) 알 이 적”다는 비애감을 토로하는 정도로 그쳤다. 하지만 다행히 통학생 하나가 “나의 옛집”이 있는 ‘제물포’ 해변의 풍경을 “사방으로 밀쳐드난 물결이란／참으로 슬퍼요 해변에 살기”(경성제대 『문우』 창간호, 1925)라고 노래했다. 그럼으로써 ‘제물포’의 빈곤화와 폐허화에 대한 서글픈 상념과 애도를 우리 시사의 한 자리에 남기는 데 성공했다. 또 북관(北關) 출신인 김동환은 “보면 볼수록 멀어지네 내 집은／엄마야 아빠야 큰 애기라 부르지마소／목이 메여 배따라기조차 안 나오우”(『월미도해녀요』,

10) 편집부, 「멸망하야 가는 경성 (하)」, 『동아일보』, 1923.3.8.

11) 인천지국 일기자, 「인천의 현재 장래」, 『동아일보』, 1923.12.1.

12) 편집부, 「대인천 건설의 급무」, 『조선일보』, 1934.10.28.

13) 이에 대해서는 이현식, 「항구와 공장의 근대성」(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 『문학 속의 인천, 인천의 문학』, 글로벌콘텐츠, 2014) 및 이희환,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작가들, 2010) 참조.

14) 이상의 직접 인용은 강경애, 「인간문제 (82)」, 『동아일보』, 1934.11.10.

15) 인천 시편에 대한 연구로는 개항 당시~2000년대까지의 ‘인천’ 시편을 시대별·작가별로 분류한 뒤 그 의미와 가치를 따지고 있는 황규수의 『한국 현대시와 인천 심상지리』(보고사, 2015), ‘인천’ 문학의 한 장르이자 거기 속한 시들의 근대성에 주목한 이희환의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작가들, 2010)와 『인천아, 너는 잊더라 도시?: 근대도시 인천의 역사·문화·공간』(역락, 2008)이 대표적이다.

『습작시대』, 1927)라고 탄식함으로써 불우한 상황에 던져진 “참조선인의 인천”과 그곳 민중의 아픔을 위로함과 동시에 잊지 않을 줄 알았다.¹⁶⁾

만약 얼마간 피상적인 세 사람의 ‘인천’, 특히 ‘제물포’에 대한 인상과 서정이 아쉽다면, 김소월의 「제물포(濟物浦)에서: 밤」(『개벽』 1922년 2월호)에 눈길을 돌려볼 일이다.¹⁷⁾ 왜냐하면 방문객이긴 해도 ‘관광(여행)의 시선’, 그러니까 낯선 곳을 ‘응시하는 주체’로서 ‘타자의 시선’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관통되거나 발현되어 생성되는 ‘장소 정체성’도 깊이 박혀 있다. 이를테면

벌서 해가 지고 저물었는데요
부슬부슬 오는비에 밤이 더디고
바다바람이 칩기만 합니다.
이곳이仁川에 濟物浦라는대야요.

라는 대목을 보라. 시 곳곳에 놓인 “그리워와요”, “니칠듯해요”, “흐느칠뿐이야요” 같은 감정 중심의 용언은 이 시를 김소월 특유의 애상과 정한의 시로 읽어도 괜찮게 한다. 그러나 표기의 관행보다는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듯한 한자어 지명 “仁川”과 “濟物浦”의 존재는 「제물포에서: 밤」에 뜻밖의 긴장과 관찰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연구자에게는 “仁川”이 일본인 중심의 ‘진센’으로, “濟物浦”가 “참조선인” 중심의 ‘제물포’로 다가들며 서로 다른 ‘장소성’을 호소하는 것처럼 다가들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무슨 일로 “인천에 제물포”를 방문하여 어떤 까닭으로 “홀로 잠을들기가 참말 외롭워요”라며 전전반측했던 것일까. 이 시가 창작된 1921년 말엽~1922년 초입은 소월이 고향인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에 다니다가 3.1운동 후 편입한 경성의 배재고보에 적을 두고 있던 때다. 근대의 일상성이 지배하는 식민 수부(首府) ‘경성’을 생활과 학습의 공간으로 삼고 있던 소월의 “인천에 제물포” 방문은 짧은 휴식차 또는 신항구 구경차 종종 경인선을 타고 내려오던 경성시민들의 소소한 취향에 영향받은 행위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인천에 제물포” 방문이 낯선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의 산물이라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 소월의 시적 문법과 정서 처리법을 감안하더라도, 「제물포에서: 밤」에 점점이 박힌 우울과 슬픔, 그리움과 상실감은, 수전 손택의 말을 빌린다면, “정신-언어-허가 “자유를 찾아” 세상을 배회”하던 차에 그 희망에 못 미침으로써 발생한 ‘우울한 열정’¹⁸⁾, 바깥 말해 ‘멜랑콜리’의 감정과 매우 닮아있다.

그렇다면 저 ‘멜랑콜리’의 정서는 1923년 도쿄 유학을 준비 중이던 소월의 호기심과 불안감이 균형을 잃고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게 되어 발생할 감정의 분비물일지도 모른다. 전통적 삶의 습속과 관성이 거침없이 파괴되고 가변성과 유동성, 성장과 발전의 계몽 서사가 판을 치던 식민수도 경성¹⁹⁾의 삶은 시인에게 내면의 자족성과 평안함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감정의 파놉티콘’으로 작동했을 법하다. 휴식차 들른 개항과 개발의 대항구 “인천에 제물포”에서도 거의 다를 바 없는 현상과 감정을 경험했다면 「제물포에서: 밤」의 상념과 우울은 매우 위험하고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6) 예시한 ‘인천’에 관한 시 3편의 전문과 출처 등은 이희환의 「식민도시 인천의 시적 형상화」(『문학으로 인천을 읽다』)에서 도움을 받았다.

17) 이 시는 ‘제물포에서’를 뺀 「밤」이란 제목으로 『진달래꽃』(매문사, 1925)에 실렸다. 『개벽』본 2연 4행에 위치했던 “이곳이仁川에 濟物浦라는대야요.”가 시집본에서는 2연 2행으로 옮겨졌으며 내용도 “이곳은 仁川에 濟物浦, 이름난곳.”으로 수정되었다.

18) 수전 손택, 홍한별 역, 『우울한 열정』, 이후, 2005, 147면.

19)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473~475면.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뜻에서, 이후 “仁川에 濟物浦”를 종종 “진센에 제물포”로 변환하여 읽는 동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국에 의해 식민화, 다시 말해 강제 개발된 ‘인천’을 표상하는 말로 ‘진센’을, 이곳에서조차 소외된 이중의 식민지, 곧 더욱 메마르고 붉은 땅으로 밀려나는 “참조선인”의 향토를 재현하는 말로 ‘제물포’를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조어인 셈이다.

“진센에 제물포”의 체험은 소월을 식민지 조선의 개척과 경영의 실질적 주체가 천황의 신민들이라는 ‘제국의식’의 거침없는 활개와 분류(奔流) 속으로 던져넣었을 것이다. 폭력적인 제국의 깃발 아래 나날이 파괴되고 해체되어 가는 ‘제물포’의 전통과 역사는 거기서 누추하나마 ‘조선적인 것’을 호흡하고 감각하려던 소월의 육체와 영혼을 끊임없이 ‘국소화’시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국소화’란 ‘진센’이라는 (일제) “권력의 실험실”에 시인을 포함한 제물포의 “참조선인”을 유폐시켜 강제로 주어진 역할과 할당된 기능만 수행하는 “유순한 신체[docile bodies]”²⁰⁾로 식민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진센’에 대한 이러한 비극적 체험 때문에 소월의 정서는 그 내부에 ‘반근대’의 정념마저 울울해 보이는 그리움과 슬픔, 상실감과 우울함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더욱 문제적이었을 소월의 공간 경험은 ‘진센’의 ‘제물포’와 마찬가지로 “전통도시였던 동래와 단절된 채 새로운 식민도시”²¹⁾ ‘후잔(釜山)’을 출발,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関]와 고베[神戸] 항구를 거쳐 도쿄(東京)로 건너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²²⁾ 일제의 ‘진센’과 ‘후잔’은 조선의 ‘제물포’와 ‘동래’를 밀어내며 ‘조선의 관문’, ‘대륙의 현관’으로 식민주의적 장소성을 급속히 확보해 가던 장소였다. 하지만 그토록 ‘활기찬 근대’는 두 곳을 건강한 생산의 ‘진정한 장소’보다 현란한 감각과 소비가 작렬하는, 또 그럴수록 잘 기획된 “유순한 신체”가 식민지인의 내·외부를 빠르게 잠식하는 ‘무장소성’의 공간으로 몰아갔을 따름이었다. 이를 두고 누구는 ‘후잔’: “‘모던’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로, 다른 누구는 ‘진센’: “‘모던’ 그 뒤에 숨은 ‘그림자’”, 다시 말해 “근대도시 인천에 심어진 서구 열강 및 일제 침탈의 그림자”로 차갑고도 뜨겁게 비판했다.²³⁾

예의 부정적 경험은 그가 건너갈 일본 내지의 도회에서 훨씬 심각해질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곳들은 일본의 각 회사와 연락해 “조선의 쿨리[苦力]”, 곧 ‘요보’로 불리며 천대받고 멸시되던 조선의 “농촌 노동자를 빼내” 팔아먹는 일본인 “협잡 부랑배”²⁴⁾들이 판치는 또 다른 식민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조선의 하층 ‘요보’들은 “동양 삼국 옷을 한몸에” 감고, 그 뜻도 불분명하게 ‘조선말’과 ‘일본말’, 어떤 때는 일찍이 돈 벌러 갔다가 쫓겨온 만주의 ‘중국어’를 섞어 횡설수설하는²⁵⁾ 노동자와 날품팔이가 되어 배고프고 고단한 삶을 근근이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유학을 시작할 소월에게 다음과 같은 장면과의 지속적 갈등 및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을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설계자이자 구원자로 자처하는 일제 신민의 오만한 주인의식 및 허구적인 시혜 의식 아래로 던져지는 부정적 현실의 발생이 그것이다.

1년 후로 예정되어 있던 유학생 김소월의 이향(離鄉) 관련 현실은 이른바 “진센에 제물포”로 변환된 항구 경험과 그곳의 장소성을 식민지 근대화가 초래한 “괴이한 현상”들의 집합소로 몰아가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이 그냥 혼자 서 있으며, 장면이 자꾸 바뀌는 쇼처럼 번갈아 오고갈 뿐”이며, 자신은 ‘구경꾼’처럼 그

20) 에드워드 S. 케이시, 박성관 역, 『장소의 운명』, 에코리브르, 2016, 371면.

21) 김 승, 「근대식민도시 부산의 형성과 발전」, 부산근대역사관,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부산 B씨의 인천기행』, 2008, 176면.

22) 김소월이 도쿄 유학을 위해 거쳐 간 노선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1918년 도쿄에서 부산을 거쳐 경성으로 귀환하는 『만세전』의 문제적 주인공 ‘이인화’의 행보를 참고하면, 1923년 유학을 떠난 소월도 경성→부산→시모노세키→고베→요코하마→도쿄의 경로를 밟았을 것이다.

23) 부산근대역사관, 앞의 책, 170면 및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인천 문필가 현(玄)의 부산기행』, 2008, 172면.

24) 염상섭, 『만세전』(원본 수선사판, 1948), 창작과비평사, 1987, 53면.

25) 현진건, 「고향」(『조선의 얼굴』, 글벗집, 1926), 임형택 외 편, 『한국현대대표소설선』 1, 창작과비평사, 1996, 353면.

동일한 자리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무장소성’의 경험(『장소와 장소상실』, 193면)과 그에 따른 소외의식의 조장이 그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제국의 식민주의적 통치의 효과는 ‘제물포’의 “참조선인”들의 식민지적 (무)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제국의 우월한 힘과 가차 없는 폭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인의 식민지적 ‘위치’를 명확히 깨닫게 하고 그에 따른 ‘한계’도 정확히 주지시킴으로써 자아의 열등감과 민족의 패배감을 일상화시킨다²⁶⁾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인 사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김소월의 “홀로 잠을들기가 참말 외롭워요”라는 참담한 고백은 그 자신의 우울한 내면과 슬픈 감정만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식민 수부(首府) ‘게이조[京城]’에서도 일상적으로 마주했던 일제의 차별적 시선과 태도를 “진센에 제물포”에서도 예누리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과 서글픈 내면을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3. ‘실심한’ ‘점경’의 ‘이국정조’, 고독한 ‘이방인’의 ‘제물포’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중반 무렵 인천과 제물포에 대한 미학화의 특징을 말할 때 ‘구인회’ 동인들의 ‘제물포 풍경화’가 집중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빠지지 않는다. 시와 소설 가리지 않고 발표순으로 나열하면 정지용(『슬픈 인상화』, 1926), 박팔양(『인천항』, 1927), 김기림(『길에서-제물포 풍경』, 1934), 이상(『지주회시』, 1936), 이태준(『밤길』, 1940) 순이 된다. 그러나 15년에 이르는 작가별 출판작의 연차(年差), ‘구인회’ 결성 시점(1933. 8), 동인지 『시와 소설』의 창간 시점(1936) 및 해당 작품들의 비계제 등을 고려하면, ‘구인회’의 ‘제물포 풍경’이라는 언술은 적절한 규정이거나 정확한 해석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게다가 ‘이국정조’와 ‘고독’이 주로 강조되는 시 속의 ‘제물포’ 풍경과 하층민의 빈곤한 삶 또는 낙심한 예술가의 췌바퀴 일상에 초점이 맞춰진 ‘제물포’ 서사 사이의 낙차도 만만찮다.

하지만 그렇다손 쳐도 “인천에 제물포”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던 KAPF 계열의 작가들과 비교할 때 ‘구인회’ 동인들의 이곳을 향한 미학적 인식과 표현이 별다른 공통점 없이 흩어져 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제물포’는 그들에게 시와 서사 모두에서 “‘모던’이라는 이름의 신기루”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한 바위틈에 파선과 같이 참담”(김기림)한 비애와 상실감을 부과해 준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동인 결성 전후의 ‘구인회’ 회원들에게 ‘제물포’는 그곳에 대한 ‘공동제작자’가 되는 방법, 서로 다른 여러 스타일과 감각, 표현의 관행(『관광의 시선』, 360면)을 통한 공통의 ‘장소성’ 발견과 체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미학화한 ‘제물포 풍경’에 엿보이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의 시선은 무척 대조적인 두 가지 형식을 엿갈리게 담아내고 있다. 하나는 그곳 고유의 “국지적, 지역적 경관”의 파괴가 가져온 “슬픈 인상”(정지용)의 심화와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의 근대적 항구에 세워진 틀에 박힌 각종 “건축물과 인공 경관, 가짜 장소”의 획일성(『장소와 장소상실』, 203면)에 따른 “근심스런 풍랑”(정지용)의 내습과 관련된다. 특히 정지용과 김기림의 ‘제물포’ 시에 채색된 ‘이국정조’의 면면이 현란하고 그로테스크한 심상 대신 “실심한 풍경”(정지용)이나 “막차를 기다리는 손님”(김기림)의 조바심 가득한 내면과 같은 우울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도 저 두 가지 정황과 깊이 관련된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먼저 정지용과 김기림의 ‘제물포’ 체험 및 그곳에서 감각화된 ‘이국정조’의 양상과 본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26) 이재원, 『제국의 시선, 문화의 기억』,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169면. 이때의 식민주의적 효과는 (프랑스)제국의 박람회에서 기획, 실현된 것이다. 이 효과는 선진 자본과 문명으로 근대화된 ‘일제-진센’과 여전히 전근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 조선-제물포’ 사이에서도 여김없이 발생했다.

1) ‘슬픈 인상’의 “진센 제물포”와 낭만적인 “머언 황해”: 정지용

먼저 정지용이 그려낸 ‘제물포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시로는 「슬픈 인상화(印象畵)」(『학조』 1926년 6월호), 「내 맘에 맞는 이」(『조선지광』 1927년 2월호), 「오월 소식(五月消息)」(『조선지광』 1927년 6월호) 세 편이 주로 지목된다. “축항의 기적소리”, “쌍무지개 홍예문 들어세운 별”, “먼 황해가 남설거리나니” 같은 표현으로 보건대 세 편이 ‘제물포’ 심미화의 텍스트인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 맘에 맞는 이」를 유보한 채 다른 두 시의 ‘제물포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시는 ‘홍예문’ 운운 때문에 ‘제물포’를 소재 삼은 시로 판정되곤 한다. 인천의 ‘홍예문’은 제물포 일대에 설정된 조계지와 인천의 중심 만석동을 연결하기 위해 1908년 설치되었다. “쌍무지개 홍예문 들어세운 별로／내달리니시면”에 보이는 ‘홍예문’이 인천의 그것과 동일시되는 관행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쌍무지개”와 “홍예문”의 유사성, 곧 양자의 둥근 모양에 대한 인지와 표현이 해당 시구의 본질임을 감안하면 「내 맘에 맞는 이」의 ‘홍예문’을 인천의 그것으로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워진다.

인용한 구절은 누군가의 주석처럼 “마치 아치형의 홍예문을 만들어 세운 것처럼 쌍무지개가 별판에 떠 있”는 장면으로도 읽어낼 수도 있다.²⁷⁾ 그럴 경우, 시 속의 ‘홍예문’은 원래의 뜻대로, 곧 광화문과 같은 전통의 건축물에 보이는 무지개처럼 둥근 출입문으로 해석되어도 크게 문제시될 것 없다. 게다가 「내 마음에 맞는 이」에서는 제물포나 바다 관련 이미지를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시를 ‘제물포’ 대상의 시에서 유예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침울하게 울녀오는
 築港의 汽笛소리... 汽笛소리...
 異國情調로 파덕이는
 稅關의
 旗人발,
 旗人발
 세메니트 칸 人道側으로
 사뭇 사뭇 옮겨가는 하이얀洋裝의點景.
 그는 흘러가는 失心한風景이여니.
 부질업시 오레니 지 찻질을 씹는 숨흡이여니.

「슬픈 印象畵」 부분

정지용의 ‘제물포’ 시는 「슬픈 인상화」로 대표된다. 인용부 말고도 시인은 수박 냄새 풍기는 제물포의 첫여름 저녁때 풍경을 “머—니 해안 쪽포풀아— 늘어슨 큰기르로/ 電—燈. —電—燈/ 電—燈. —電—燈.”이라고 점묘했다. 표현의 세련미와 심상의 명징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이미지스트 정지용의 ‘언어 미술’의 수준을 감득하게 하는 명장면이라 할만하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시인은 ‘축항’을 인천의 그것으로 파악할 만한 근거를 시 내부에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의 진정한 소재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27) 권영민이 「내 마음에 맞는 이」 원문에 부친 주석. 더욱 자세한 내용은 권영민 편, 『정지용 전집 1: 시』, 민음사, 2016, 299면 참조.

사실 어두워 가는 늦저녁, 희미한 가로등이 어슴푸레하게 빛나는 ‘축항’은 한국에서 별다른 증거도 없이 ‘제물포’로 고정되었다. 이와 달리 몇몇 일본학자들은 지명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는 점, 상하이[上海] 정기노선의 존재, 일본 유학 당시 정지용의 승선 경험 등을 토대로 시적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을 고베[神戸]항 내지 요코하마[横浜]항으로 점찍기도 했다.²⁸⁾ 그렇지만 2015년 「슬픈 인상화」의 일본어본이 발굴됨으로써 일본어 제목과 그 발표지가 분명해졌다. 일본어본 제목은 「인천항의 어떤 추억[仁川港の惑る追憶]」이며, 첫 발표지는 1925년 11월 발행된 『도시샤[同志社]대학예과학생회지』이다. 이 텍스트가 다음 해 6월 발표된 한국어본 「슬픈 인상화」와 크게 다른 것은, 늘어선 “電一燈. 一電一燈.~”이 “電燈の數. 數”로, “기적소리...~”가 “汽笛. 汽笛.”으로, “旗人발,~”이 행구분 없이 “旗. 旗.”로, 또 “失心한 風景”이 “失望の風景”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²⁹⁾

예의 시행과 언어 형식에 대한 공들인 수정과 변화는 “안으로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옴기”를 바라마지않았던 정지용의 ‘시의 위의’³⁰⁾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열정을 선제적으로 대변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어본 「인천항의 어떤 추억」과 「슬픈 인상화」를 겹쳐 읽을 경우, 두 텍스트의 핵심어 “이국정조”, “실심한 풍경”, “오래나 지 씹질을 씹는 슬픔”의 의미와 가치가 한층 복잡화된다는 사실이다. 일본어본과 같은 ‘인천항’의 제시는 그곳의 ‘장소성’을 오로지 ‘식민지 항구’만의 것으로 좁혀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제목에서 ‘인천항’을 삭제하고 그것을 ‘슬픈 인상화’로 대체함으로써 ‘축항’은 근대적 항구 보편의 것으로 그 뜻과 가치를 바꿔입게 된다. 정지용의 시적 지혜와 감각이 또 한 번 빛나는 지점이다.

한편 1920년대 내내 두 텍스트의 핵심지대인 ‘축항’은, 첫째, 공업 원료 수입과 상품 수출(유통) 같은 제국의 이익 도모와 보장의 차원, 둘째, 조선 노동자의 집합지이자 빈민의 소굴인 그곳에 대한 경제적 구제 사업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증설과 확장이 요구되었다. (『인천부사』, 740면) 그 결과로 새로운 항구지대로 거듭난 ‘축항’ 일대는 1930년대 중반 “삼천돈급 또는 팔천돈급의 대곡선을 한꺼번에 5척을 입항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³¹⁾로의 성장과 변신이 가능해졌다.

정지용은 일본 유학을 전후한 1923년 무렵 제물포의 ‘축항’ 지대를 여러 번 방문했던 듯하다. ‘축항’의 증설과 확장은 “전등”의 증대, 기차와 선박의 “기적소리” 증가, “하이얀 양장의 점경” 강화 등 일제 신민 중심의 ‘근대적·자본주의적’ 발전과 균질화가 더욱 가속되는 식민 권력의 제국주의적 ‘장소 만들기’에 해당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본어본 「인천항의 어떤 추억」은 제물포 ‘축항’ 사업의 확장과 증설이 진행되던 때 그곳을 방문한 정지용의 심각한 내면과 미적 반응을 표현한 텍스트로 읽힌다. 그에게는 일제의 이익과 편리가 중심에 서는 ‘진센’의 대변영도, 그것을 대(對) 조선인 빈민 구제 사업으로 포장, 선전하는 작태도 마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축항’의 폭력적인 ‘무장소성’이나 ‘장소 상실’의 심화를 뜻하는 “소란스럽던 쪽발 딸가닥 소리, 장화 빠기던 소리, 군도(軍刀) 절거덕 거리던 소리”³²⁾가 더욱 커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리들은 존재의 불편함과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사운드 스케이프’, 곧 그냥 듣기 싫은 ‘소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문제적이었다. 그것들은 제국의 거대한 권력과 촘촘한 제도의 상징이자 산물이라는 점에서 천황제 권력이 생산하는 ‘무장소성’을 끊임없이 환기하기에 충분한 ‘폭음(爆音)’에 가까웠다.³³⁾

28) 대표적 예로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2002, 136~138면 참조.

29) 이 시는 이후 「悲しき印象畫」(『近代風景』 1927년 3月号)에서 『학조』본 「슬픈 인상화」를 거쳐 『정지용시집』(1935)의 「슬픈 인상화」로 정착한다.

네 작품을 포괄한 발굴자료로는 편집부, 「정지용의 일본어 시 2」, 『지구적 세계문학』 2015년 가을호(통권 6호), 486~491면 참조.

30) 정지용, 「시의 위의(威儀)」, 『문장』 1939년 11월호(통권 10호). 여기서는 권영민 편, 『정지용 전집 2: 산문』, 민음사, 2016, 204면.

31) 편집부, 「950만원(圓) 공비(工費)로 대인천 축항(築港) 계획」, 『조선일보』, 1934.12.9.

32) 정지용, 「부산 3: 남해오월점절(南海五月點綴) 5」(『국도신문』, 1950.5.16.), 권영민 편, 『정지용 전집 3: 미수록 작품』, 민음사, 2016, 517면.

효율적이며 획일적인 권력 행사로 지칭해도 좋을 이 폭음이 더욱 커지고 지속될수록 식민지 조선은 제국의 영원한 속지(屬地)로, 또 새로 개척한 ‘신내지(新內地)’로 더욱 빨리 등기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경험은 일본 유학 당시 오가던 ‘후잔’ 향의 것이지만, ‘조선인’과 ‘조선적인 것’이 억압, 은폐되는 “진센에 제물포”에서 발생하는 “이국정조”의 본질로 동일시해도 전혀 문제 될 것 없다. 확장과 발전 도상의 ‘축향’을 두고 시인이 무료하게, 아니 끔찍하게 “흘너가는 실심(失心)한 풍경”으로 느끼며, 그것을 바라보는 착잡한 심정을 “부질없이 오래니 지 썩질을 씹는 습함”(또는 “시름”)으로 감응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일본적인 것’의 권력성과 폭력성 때문일 것이다. 이 끔찍한 사태의 문제성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던 시인은 한국어본 「슬픈 인상화」에서 ‘仁川’, 곧 ‘진센’과 ‘제물포’ 모두를 지워버리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럼으로써 제국 일본이 지배·통치하는 모든 항구, 특히 제국 내외부의 식민지에서 전통적인 ‘일본적인 것’만을 중심에 둔 채 식민지의 타자화와 소외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차갑고 슬프게 드러냈던 것이다.

식민의 땅에 대한 억압과 착제에 관련된 일제 천황 권력의 가장 기초적이며 궁극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식민지에 뿌리내린 존재와 자연, 문화유산들이 숨 쉬는 ‘가룩한 타자’들의 ‘진정한 장소’를 파괴하는 작업을 빼놓을 수 없다. 이 행위는 식민지 약소국의 민중들이 조직하고 누려온 오랜 시간과 전통을, 또 이것들의 높은 가치를 그들만의 ‘고유한 장소’에 새기고 쌓아온 ‘진정성’까지 부정하는 곳까지 이른 뒤에야 멈춰진다. 이를 두고 가장 속악하며 폭력적인 ‘장소 파괴’(『장소와 장소상실』, 221면) 행위로 부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숨어 있다. 정지용은 일제의 ‘장소 파괴’를, 다시 말해 조선 차원의 ‘장소 상실’을 조선의 ‘인천’과 ‘부산’, 일본의 ‘시모노 세키’와 ‘고베’ 등지에서 몇 차례 경험하면서 일본어본 「인천항의 어떤 추억」을 한국어본 「슬픈 인상화」로 고쳐 쓰기로 새삼 결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럼으로써 일제의 내외부 식민지에 대한 ‘장소 파괴’를 통찰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방법적 조치이자 미적 실천으로 「슬픈 인상화」를 새로이 위치 짓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면, 「오월 소식」 속 “가여운 글자마다” 남실거리는 “머언 황해”라는 시구는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제공하는 낭만적 상상력(“외따른 섬 로맨티크”)의 소산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머언 황해”는 “날 마다 밤 마다 섬돌레가 근심스런 풍랑(風浪)에 씹히는” 식민지 “진센의 제물포”를 내면적·미학적 으로나마 초월한 결과 간신히 손에 거머쥔 ‘진정한 장소’에 해당한다. 그곳은 “진센에 제물포”를 장악하고 있던 기능적·세속적 장소성에서 벗어나 자아가 무엇보다 “내부에 있다는 느낌” 아래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충만한 장소감을 허락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쩌면 정지용은 “머언 황해”를 생애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진정한 장소’로 상상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후 조선과 일본 것인 동시에 두 나라 것이 아닌 본원적 ‘바다’의 탐색과 표현에 몰입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후 몇 차례 창작된 「바다」 연작은 이에 대한 물질적 증빙자료 가운데 하나인데, 현재까지도 정지용의 높은 성취를 대변하고 있다.

2) “바다의 비린내” 부재 또는 ‘고독한 이방인’의 제물포 : 김기림

이제 총 8편의 짧은 시로 구성된 김기림의 「길에서-제물포 풍경(濟物浦風景)」에 보이는 여행자의 시선과 장소성의 성격을 검토할 차례가 되었다. 이 연작시는 첫 발표지 『중앙』 1934년 10월호에 「해변시집(海邊詩集)」으로 실렸다. 산문시집 『태양의 풍속(風俗)』(1939)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시의 제목이 「길에서-제물포 풍경」으로, 소재

33)에드워드 켈프는 ‘중앙 권력’에 의해 수행되는 효율적이며 획일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조장되는 ‘장소의 획일성’을 ‘무장소성’을 전달하는 매체와 체계의 하나로 설정했다.(『장소와 장소상실』, 243면)

목 가운데 「정거장(停車場)」은 「인천역(仁川驛)」으로, 「에트란제(異邦人)」는 「이방인(異邦人)」으로 수정되었다. 시인은 이 작업을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지점과 감각의 대상이 ‘제물포’와 ‘인천역’ 일대, 곧 ‘진센’의 번성 지대임을 분명히 밝혔던 셈이다. 그럼으로써 “제물포 풍경”이 자신에게 허락하는, 또는 스스로가 이미지화하고 싶었던 내면의 감각과 정서를 예각화해 갔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1) 「메이드·인·아메-리카」의
성냥개비나
사공의 「포켓」에 있는 까닭에
바다의 비린내를 다물었습니다.

「인천역(仁川驛)」 전문

- 2) 仁川驛 待合室의 조려운 「뽕취」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손님은 저마다
해오라비와 같이 깨끗하오.
거리에 돌아가서 또다시 人間の 때가 묻을 때까지
너는 물고기처럼 純潔하게 이 밤을 자거라.

「대합실(待合室)」 전문

「길에서-제물포 풍경」(1934)이 발표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1932년 ‘인천역’은 1년간 승하차 인원 21만여 명, 화물 발착톤수 732여만 톤에 달할 정도로 번영을 구가하는 중이었다. 특히 경성-인천을 오가는 양쪽 시민과 학생,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경인간 쾌속열차는 1일 13회 왕복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에 더해 상·하행 시간도 짧으면 50분, 길어야 59분 걸릴 정도로(『인천부사』, 850~853면) 그 신속성과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두 시 속의 낯선 ‘외래어’, ‘인천역’과 ‘대합실’ 같은 신식 용어는 정지용의 「슬픈 인상화」를 빌린다면, “진센”의 거리를 흐르는 “이국정조”와 “하이얀 양장의 점경”을 농침 없이 눈에 담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다의 비린내”를 다문다는 고백과 “인간의 때가 묻을 때까지” 잠들라는 명령에서 보듯이, “인천역”이 건강한 사회적 유대와 행복한 가정생활, 주체와 타자 상호 간의 우정과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관광’이나 ‘방문’의 장소(『관광의 시선』, 220면)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바다의 비린내” 제거와 “인간의 때”에 대한 덧칠 요청은 김기림 역시도 “진센에 제물포”에 가득한 일제 주도의 근대적 균질성과 획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과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3) 나는 이 港口에 한 벼도 한 親戚도 불룩한 지갑도 戶籍도 없는
거북이와 같이 징글한 한 異邦人이다.

「이방인(異邦人)」 부분

- 4) 푸른 모래밭에 자빠져서
나는 물개와 같이 完全히 외롭다.
이마를 어르만지는 찬 달빛의 恩惠조차
오히려 화가 난다.

「고독(孤獨)」 전문

1934년 3월 김기림은 소설가의 윤리와 의무를 강조하며 “영혼의 고투의 기록”은 “작가와 세계의 관계를 한 개의 위기에 있어서 발견할 때 그의 영혼은 분열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고민이 계속된다”³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견해를 자신의 시 작업에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김기림은 “제물포 풍경”에서 스스로를 징글맞은 “이방인” 연하며 가슴 시린 “고독”의 존재론을 먼저 곱씹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부끄럼 많은 보석(寶石)장사 아가씨”의 “루비 싸파이어 에메랄드……” 가득 담긴 “보석(寶石) 바구니를 살그머니 뒤집”어 보기를 바랐다. 이것은 비록 시인 자신 방문객에 불과하지만, ‘제물포’가 자신이 정말 속한 곳이자 진정한 의미가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경험되기를 은연중 소망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진센’ 항구에 서 있는 김기림은 위와 같은 ‘실존적 내부성’의 경험이 거의 불가능함을 날카롭게 알아차렸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이 “시인의 흉내”를 낼 수도, “「파이론」과 같이 짓”을 수도, “갈매기와 같이 슬퍼질 수”도 없는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좌절과 패배의 내면을 아프게 고백한 것이 “상(傷)한 바위틈에 파선(破船)과 같이 참담(慘憺)하다”(「파선(破船)」)라는 장면이다. 만약 김기림의 영혼과 시편이, “노을이 타는 서쪽 하늘 밑으로 빨려”가는 ‘기차’의 모습에서 짐작되듯이, 도착해야 할 종착점을 뻔하게 지시하는 정도로 그쳤다면 저 ‘파선’의 기호와 점경(點景)은 웬만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기림은 “제물포”에서 “머먼 바다의 잔디밭에서 바람은 갑자기 잠을 깨여서는 쉬파람을 불며 불며 검은 파도(波濤)의 떼를 몰아가지고 항구(港口)로 돌아”(「조수(潮水)」)³⁵⁾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럼으로써 “소위 인천부는 원 제물포라고 칭한 삭막한 일개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일본 근세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치, 관계를 가진 제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변성 중이라는 피상적이며 판에 박힌 이미지에 멈춰 있는 “진센에 제물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얼마간 성공했다. 하지만 김기림은 해방 전까지 “제물포 풍경”을 더 이상 엿보거나 묘사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제물포’를 여전히 불명료하고 불안정한 ‘부정성의 공간’으로 남겨두었다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피끓은 기동부대 해방의 병사들이” “꽃바다기빨바다파도소리 헤치고 밀물쳐”(「파도소리 헤치고」, 1945)라는 대목은 한결 소중하게 여겨진다. 식민지 조선의 해방과 더불어 인천항으로 상륙하는 연합군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의 증빙물에 불과했던 “인천에 제물포”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꽃”과 “기빨”의 “바다”로 거칠 것 없이 파도칠 수 있을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기림은 자신이 목격한 “해방의 병사”만을 앞장서 그리느라 바쁜 나머지 남한에 대한 점령군으로 진주한 그들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연합군을 환영하야”라는 목소리를 시의 핵심 가치로 내세움으로써 이후 분단 체제 형성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미국 중심의 연합군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예리한 통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34) 김기림, 「문예시평(文藝時評): 작품과 작자의 거리」, 『조선일보』, 1934.4.1.

35) 이 구절은 김기림이 즐겨 했던 ‘문명비평’의 시각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의 폭력적 진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연합군의 상륙을 기쁘게 노래한 「파도소리 헤치고」와 연결시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물포’를 점령한 일제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시로 해석했다.

4.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인천항', '비애'와 '절망' 무역의 '항구'

김소월과 정지용, 김기림의 시들은 “진센에 제물포” 자체보다는 그것을 배경 삼아 시적 화자의 개인적 고독과 슬픔, 시름과 정한을 그려낸 인상도 짙다. 각종 근대적 건축과 시설, 이를테면 세관, 영사관, 조계지, 부두(항구), 기선, 화물선, 조선 노동자, 외국 선원과 수부(水夫), 조·일의 유곽과 매음녀 등이 어지럽게 뒤섞인 식민지 근대화의 축소(縮圖)³⁶⁾로서의 ‘진센’항, 그러니까 “제물포 부두”(박팔양)는 그런 면에서 아직은 낯설 수밖에 없다.

이렇듯 권력에 기반한 식민주의적 기술과 산업, 경영 체제 및 퇴폐적인 소비와 유흥이 구조화된 ‘진센’항은 식민지의 ‘장소 상실’과 거기서 발생하는 ‘무장소성’을 전형적으로 표상한다. 이상적 발전과 진화, 건전한 여유와 휴식으로 선전되는 내부의 모순적 구조물들을 무한히 팽창시킴과 동시에 무한대로 순환시키려는 타락한 욕망이 쉽 없이 발동 중인, 곧 오장환의 「해수(海獸)」를 빌린다면 “사람은 저 빼놓고 모조리 짐승”인 “해수”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방문객이 ‘진센’항에 들를 때마다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화물선에 얹디어 구토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타락한 그곳은 최소한 “거리의 골목 벽돌담에 오줌을 깔겨보”거나, 최대한 그 “길을 똑바른 싸움의 길로 디디”³⁷⁾게 하는 저항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진센에 제물포”에 관련된 이 두 장면을 1927년 박팔양의 시와 1935년 이후 오장환의 시에서 찾아보게 될 것이다.

조선의 서편 항구 제물포 부두
세관의 旗는 바닷바람에 퍼덕거린다.
젖빛 하늘, 푸른 물결, 潮水 내음새,
오오,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
저음의 기적,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많은 목숨을 싣고 떠나는 배다.

「인천항(仁川港)」부분

인천 지역 “무명작가의 공기(公器)”가 될 것을 희망하며 창간된 동인지 『습작시대(習作時代)』(1927)에 실린 박팔양의 작품이다. 그는 “조선”의 “제물포 부두”라고 애초에 못 박아둠으로써 ‘진센’항을 ‘조선적인 것’의 근대적 형식인 “인천항”으로 다시 점유했다. 하지만 “인천항”의 진면모는 ‘조선’만의 것이기 전에 세계 곳곳, 이를테면 “어제는 Hongkong, 오늘은 Chemulpo, 또 내일은 Yokohama”를 오가는 “공동환(共同丸)”—‘환(丸)’은 기선(배)을 뜻한다—의 “깃발이 퍼덕거”리는 국제적 공공의 장소라는 사실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는 ‘인천항’에서 식민 권력과 자본의 힘을 뽐내는 귀족적 정장(正裝)들을 마주치기 전에, “술 취한 블란서 수병”, “경상도”와 중국 “산동성”이 “고향”인 조선과 중국의 노동자를 먼저 발견한다.

강제적 이향(異鄉) 또는 호구지책의 탈향(脫鄉)을 본질로 하는 저 약자들은 제국과 자본의 이익과 권력의 부양을 위해 개척, 건설된 “부조리하고 인공적인 장소”(『장소와 장소상실』, 205면), 곧 ‘진센’항에서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쫓겨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팔양은 이들을 무력한 식민과 착취의 존재로 대상화하기보다

36) 이것의 실제적 장면은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①: 선구지 인천의 근대풍경』, 2013에서 다채롭게 엮을 수 있다.

37) 앞의 구절은 「해수」(『성벽』, 1937)에서, 뒤의 구절은 「가거라 벗이여: 흑인병사 엘·에스·브라운에게」(『병든 서울』, 1946)에서 가져왔다.

“세계를 유랑하는 코스모폴리탄”으로 새로이 가치화한다.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인천항’도 ‘진센’도 아닌 “제물포”가 연거푸 호명되고, 저 약자들이 일하고 쉬기를 반복하는 그곳의 이미지를 “잊을 수 없는 항구의 풍경”으로 깊이 각인하는 까닭도 예의 ‘국제주의’적 의식 및 감각과 깊이 연관된다.

시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존중과 약자들의 강렬한 ‘귀향’ 의식에 귀 기울이는 연대의 정서는 1920년대 중반 그 자신이 경도되었던 반제·반봉건의 사회주의 의식, 궁핍한 민족·민중의 현실의 형상화에 집중했던 ‘신경향파 문학’의 영향에서 발원한 것일 터이다. 그 진보적 저항 의식과 언어의 계급성 아래 “제물포”는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들의 “고향의 노래”가 불리는 일종의 ‘상상적 해방구’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지용의 「슬픈 인상화」(1926)에는 “아아, 애솔리·황(愛施利·黃)/그대는 상해(上海)로 가는구려—”라는 구절이, 박팔양의 「인천항」(1927)에는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상해’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흥미로운데, 이것은 당시의 조선-상해간 국제노선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두 시가 발표되거나 그러기를 기다릴 즈음인 1925년 4월 “조선, 상해선(청도 기항) 및 조선, 나가사키, 대련선의 조선총독부 명령항로”가 ‘연 18회 운항’을 승인받았기(『인천부사』, 780면) 때문이다. 1932년 1월 말 발발한 ‘상해사변’이 증명하는 바이지만, 일제에게 대련, 하얼빈, 상해, 남경 등은 대륙진출의 성공과 지배를 위해 반드시 점령, 통치해야 할 필수적 공간이었다. 그러니 침략과 전쟁 전 그곳들은 제국의 이익과 그 자본의 진출을 보장하는 항공, 선박, 철도 관련 운영 체제가 늘 요구되는 곳이었다.³⁸⁾ 이곳에 인천-상해간 정기항로의 신설 이유가 존재한다. 여기서 두 시인이 인천-상해간 정기항로의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낯선 국제도시 ‘상해’를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것임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두 시인의 ‘상해’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대상은 무엇이였을까. 1920~30년대의 ‘상해’는, ‘상하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명명에서 보듯이, 제국주의의 자본과 문화, 파행적 사상과 퇴폐적 취향뿐만 아니라 맑시즘과 트로츠키주의, 적색혁명 문화와 예술까지 유행하는 급진적인 동시에 퇴폐적인 국제도시였다. 제국을 찬양하고 그 정책에 동조하는 일본 작가들은 ‘상해’에서 더 전통적이며 경멸적인 ‘지나(支那)’를 발명하고 고착화하기 위해 “빈민굴의 더러운 풍경”을 탐사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했다.³⁹⁾ 이들과 달리 식민지 조선의 정지용과 특히 박팔양은 식민화와 궁핍화라는 이중의 뒤통수에 갇힌 “참조선인”들의 ‘제물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던 ‘상하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충실히 해결하고 더욱 풍요로운 자유와 해방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겠다.

이제 박팔양의 「인천항」보다 10여 년 지나 발표된, 정지용의 휘문고보 제자였던 오장환이 방문하고 표현했던 “진센에 제물포”를 살펴볼 차례다.⁴⁰⁾ 함께 읽어볼 「해항도(海港圖)」는 지용과 팔양의 시보다 10여 년 늦게 발표되었으며, 그 당시는 일제 군국주의의 강압적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던 때였다. 그런 만큼 「해항도」에는 그와 함께 『시인부락』 동인으로 활동했던 서정주가 존경의 태도를 표하면서도 ‘영향에 대한 불안’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정지용씨류의 감각적 기교와 경향파의 이데올로기”⁴¹⁾에 대한 미학적·이념적 초월의 실험적 언어와 표현이 얼마

38) 이에 대해서는 若林宣, 『帝國日本の交通網』, 青弓社, 2016의 중국 관련 부분들 참조.

39) 이 단락의 상해 문화에 대한 설명은 리어우판(李歐梵), 장동천 외 역, 『상하이 모던: 새로운 중국 도시 문화의 만개, 1930~1945』, 고려대출판문화원, 2017(3쇄) “제9장 상하이 코스모폴리타니즘” 곳곳 참조.

40) 「해수」와 「해항도」를 ‘인천항’을 모델로 한 시로 파악한 연구자는 황규수(『한국 현대시와 인천 심상지리』, 41~45면)이다. 선행 연구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또 항구의 장면들이 박팔양의 「인천항」에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인천(제물포)’ 대상의 시로 선택했다.

41) 서정주, 『현대조선시약사』, 서정주 편, 『현대조선명시선』, 온문사, 1950, 266면.

라도 담겨 있을 법하다. 또한 당시에 ‘사실의 세기’라는 말의 공공연한 유행을 몰고 온 까닭이 되었던 전체주의적 파시즘과 일제 군국주의의 정치적·군사적 연맹은 ‘근대의 파국’을 눈앞의 현실로 불러들이던 차였다. 당대의 역사적 현실에 민감했던 오장환이고 본다면, “진센에 제물포” 대상의 「해항도」와 「해수(海獸)」에는 어떤 식으로든 ‘근대의 파국’ 및 그것의 초월 의지와 관련된 언어와 표현이 잠복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豐盛한 賭博은 호박꽃처럼 버뜨러졌고 밤마다 부르는 붉은술. 紅燈女の嬌笑 간드러지기가. 煙氣를 한숨처럼 품으며 억세인손을들어 墜落을 스스로히 술처럼 마신다. 너도 水夫이나 나도 船員이다. 자— 한잔 한잔. 배에 있으면 陸地가그리고 물에선 바다가그립다. 港市의밤은 正午보다도 眞正 밝고나

「해항도(海港圖)」부분

첫 발표지 『시인부락』 2호(1936.12.)에서 가져온 「해항도」의 일부이다. 인용부만 해도 두 연으로 나뉘고 수정되어 첫 시집 『성벽(城壁)』(1937)에 실렸다. 그렇지만 증거된 만큼의 세부 묘사를 포기하고 ‘인천항’을 처음 그린 순간의 시선과 서정을 취하고 싶기에 첫 발표본을 취한다. 낯선 ‘인천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내린 이국의 “수부”와 “선원”, 그들을 웃음과 술, 성(性)으로 접대하는 간드러진 미소의 “홍등녀”들은 방탕한 유희에 하릴없이 절어 있다. “축항 카페”(박팔양)와 도박장, 술집과 유곽은 그런 점에서 저 하층민들의 현실을 괄호 침과 동시에 그들의 처지와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타자 착취와 소외의 공간이다.

물론 오장환은 ‘진센’항의 타락한 국면과 그곳을 드나드는, 조선을 포함한 만국의 하층계급을 비판하기 위해 「해항도」를 짓지 않았다. 이를테면 『성벽』에 함께 실린 「해수」에서도 ‘항구’를 전전하는 “수박씨를 까부수는 병든 계집”과 “바나나를 잘라내는 유곽 계집”, “유독식물과 같은 매음녀”에 대한 비난과 조소가 횡행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방법적 성찰의 표현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시인은 한편으로 “습진과 최악의 꽃이 성화(盛花)하는 항시(港市)의 하수구”와 거기 기생하는 “도박과싸움/흐르는 코피”의 ‘나’를 더욱 통렬하게 비판하기 위해 그녀들을 매질의 마당에 불러들인 것이다.

“진센에 제물포”를 그린 「해항도」와 「해수」의 궁극적 의미를 밝히기 전에 밝혀둘 사실이 하나 있다. 「해항도」와 「해수」에 등장하는 퇴폐적인 항구의 풍경은 1923년 일본인 유력자들로 구성된 ‘월미도유원주식회사’에 의해 해수욕장, 호텔, 별장, 고급 유희주점, 상가 등의 편의·위락시설이 급속히 들어서던 인천 ‘축항’ 일대의 ‘월미도’, 다시 말해 “니혼코엔 갯비토(日本公園 月尾島)”를 떠올리게 한다.⁴²⁾ 그러나 이런 유원지 건설에 앞서 ‘월미도’는 일본군의 빛나는 전승지이자 주둔지이기도 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해 두면 다음과 같다.

‘월미도’는 처음에는 ‘인천역’과 철도로 연결되었다가 이후 방파제 건설을 계기로 ‘축항’과의 왕래가 훨씬 손쉬워진다. 일본 ‘공원’ 연구자가 “동양 제일의 절경”이라 불렀다던 ‘월미도’는 애초에는 단순히 국내외 행락객의 욕망 해소를 위한 ‘풍치지구’, 곧 휴식과 유희 중심의 유원지로 그 역할과 소임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월미도’는 인천 개항 당시 및 러일전쟁 개전 당시 식민지 조선의 군사적 지배와 통치를 위한 주요 군사기지로 징발되었다.⁴³⁾ 이를테면 “월미산 정상에서 청일전쟁이 시작된 풍도(楓島)와 제국의 전함이 러시아를 격침시켰던 바다를 바라보며 일본제국의 역사를 회고하라”(『조선철도여행안내』,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는 월미도 찬가를 보라.

42) 월미도의 유원지화에 관련된 제반 역사와 과정,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김정은, 「일제강점기 월미도유원지를 통한 행락 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5), 한국조경학회, 2014 참조.

43) 군사적 공간에서 유원지로 그 위상과 역할이 전환되어간 ‘월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염복규, 「日帝下 仁川の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 월미도와 송도 유원지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1, 48~56면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해항도」와 「해수」에 보이는 이국의 “수부”와 “선원”, 그리고 조선의 “홍등녀” 및 관찰자로서 시적 화자가 마주한 퇴폐적 풍경을 권력과 군사력을 가득 거머쥔 일제 천황의 충량한 병사(일본군)에 의해 더욱 확장·심화되는 군사적 폭력성과 퇴폐성의 결과물로 암암리에 바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일제 중심의 “진센에 사이뫓보”가 “참조선인”의 “인천에 제물포”에 강제하는 “장소 박탈”의 폭력성과 소외성(『장소와 장소상실』, 294면)이 입체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특히 “진센” 홍등가에서 섹슈얼리티를 판매하는 ‘제물포’의 “홍등녀”에 대한 오장환의 비판적 시선과 행위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가령 시인은 ‘인천항’으로 간주해도 괜찮을 “이항(異港)”의 부두에서 “충충한 세관의 창고를 기어달으며” 휴게 시간에는 “함부로 술과 싸움과 도박을 하다가” “어메가 그리워 어둑어둑한 부두로 나오기도” 하는 ‘나’를 “윤락된 자식”(『향수』⁴⁴⁾으로 비판했다. 이 통렬한 반성문 속 ‘나’의 모습은 술 취한 웃음과 몸을 뽐으로써 스스로를 간신히 살리는 동시에 함부로 파괴하는, ‘제물포’라 해도 좋고 조선 어디 출신이라 해도 그만일 “진센” 카페와 유곽의 “병든 계집”이자 “홍등녀”와 다를 바 없다.

아무려나 ‘나’와 “병든 계집”과 “홍등녀”는 어떤 (진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면서 안정적이며 충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다른 욕망들’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공통성을 지닌 위기의 존재들이다. 요컨대 폭력적으로 강제된 ‘장소 상실’의 늪에 던져짐으로써 두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 것·네 것·우리 것”으로 인식되고 인정되는 ‘참된 장소’(『장소와 장소상실』, 95면)로 돌아갈 방법과 여정을 완전히 빼앗긴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오장환에게는 “암말도 앓고 고향, 고향,을 그리우는 사람들”(『향수』)을 위로하고 그들의 위태로운 ‘생명선’을 미학적으로나마 그려보는 행위가 절실했던가. 상실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귀향과 안정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생의 위기에 전면 노출된 소외자들은 ‘죽음’과 ‘타락’으로 길을 내는 “불평과 결심”만을 심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비극적이며 부정적 행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소외와 패배의 주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장소에 자신을 유동적으로 구성해 가는 어떤 맥락과 그것을 표상하는 얼굴⁴⁵⁾을 발명하고 입체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이에 대한 오장환의 미학적 응답이 “모두 깊은 상처를 숨겨 가지고” “옛 땅을 그리워하”며 “어메를 못 잊는” “설운 마음”(『향수』)의 향수자(鄉愁者)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생명의 터전이자 본원적 장소인 “어메”를 눈앞의 존재로 불러냄으로써 그들이 처한 현재의 불우한 현실을 넘어서도록 배려했다. “너의 환상”으로 재현된 “어메”의 출현은 실향이나 추방의 비애를 더욱 깊게 하는 ‘돌아갈 집’의 상실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상실(『장소와 장소상실』, 119면)을 잠시라도 넘어서게 한다. 그렇기에 ‘어메의 환상’은 “매음녀”나 노동 잡부 등과 같은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소외자들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선’이자 ‘에로스’의 표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시한 오장환의 3편의 시가 부정적 형상의 “진센의 제물포”를 타깃으로 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세 편의 시는, 첫째, ‘진센’을 포함한 식민지 조선의 항구와 도시에 만연한 현실모순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한 리얼리즘 정신의 발현물이다. 둘째, 그렇지만 「향수」에 보이듯이 “진센의 제물포”를 ‘장소 상실’이나 ‘무장소성’의 지대에서 본원적 생명과 고향의 땅으로 끌어 올리려는 ‘장소

44) 오장환, 「단장수제(斷章數題) 3: 향수(鄉愁)」, 『조선일보』, 1936.10.13. 이 시에서도 부두, 검은 세관, 광동인, 밀항선, 도박, 향수 등 「해항도」와 「해수」 계열의 시어가 많이 보인다.

45) 에드워드 S. 케이시, 앞의 책, 643면.

만들기'의 실천이다. 에드워드 켈프는 이런 종류의 '장소 구성' 행위를 두고 '감정이입적 내부성'의 실현이라고 불렀다. 이는 단순히 어떤 장소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를 만나고 이해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장소와 장소상실』, 125~127면)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정지용과 김기림은 “진센에 제물포”를 관찰하고 그곳의 성격을 ‘실심’과 ‘고독’의 풍경으로 이미지화하는 방식으로, 박팔양은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장소로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오장환은 선원과 수부, 매음녀가 퇴폐적 유희에 몸담으면서도 고향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태도로 ‘감정이입적 내부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1920-30년대 “仁川에 濟物浦”는 그렇게 해서 “진센에 사이뫼뵤”로 마냥 미끄러지지 않고 “인천에 제물포”로 끝내 살아남았다.⁴⁶⁾

5. 결론을 대신하여 : 해방기 ‘인천항’의 잔영

1883년 개항 이후 “仁川에 濟物浦”는 그곳을 보고 밝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일본 : “진센에 사이뫼뵤”와 조선 : “인천에 제물포”로 양분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식민주의 및 식민지적 시선과 (무)의식을 가로지르다 보면 “진센에 제물포”라는 모순적 공간에서 탄생하는 기이한 이국정조와 타자화된 풍경이 ‘축향’ 부두와 그 일대 거리에 펼쳐지기에 이르렀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김소월은 그 자신이 표현했던 “仁川에 濟物浦”를 이별과 상실, 슬픔의 장소로 침울하게 노래 불렀다. 이어 1930년대 조선시단의 주역으로 떠오를 예정이던 정지용과 김기림, 박팔양과 오장환은 힘센 타자, 곧 ‘진센’에 둘러싸인 취약한 주체, 곧 “참조선”의 ‘제물포(사람)’을 조선의 서정과 감각 속에 녹여내기 위한 새로운 이미지와 행위의 개발에 골몰했다.

그 결과 조선의 시인들은 한편으로는 방문객으로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배역을 빌린 ‘체험의 대리화’ 방식으로 “진센의 제물포” 풍경에 배인 ‘장소 상실’의 모습과 ‘진정한 장소’로의 회귀와 도약 가능성을 함께 그려내기에 이른다. 이렇듯 그들은 제국 그들만의 ‘진센’을 비판적으로 조감하고 “참조선인”들의 ‘제물포’를 잊지 못할 향토로 가치화하기 위해 서로 닮은 태도를 공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이입적 시선과 내면성의 발명을 통해 ‘진센’이라는 타자의 공간에 침입하면서 동시에 그곳의 윤곽을 신랄하게 벗겨냄으로써([『관광의 시선』, 90면) ‘진정한 장소감’을 제공하는 ‘제물포’로 귀환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제국의 개척과 경영에 참여할수록 오히려 파괴되고 해체되는 “인천에 제물포”를 조선 고유의 풍경과 정서 속으로 다시 위치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제 “仁川에 濟物浦”가 1945년 8월의 해방, 곧 세계민방에서 승인된 공적인 ‘새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경험했던 또 다른 “인천에 제물포” 풍경을 간단히 짚어보면 어떨까. 이것을 담은 시들을 보면, 그곳이 개인의 심리나 경험보다는 사회적으로 패턴화되고 학습되는 ‘보기의 방법’ 아래 대중의 눈앞에 제시되거나 등장하게 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런 경향성은 해방 후 ‘인천’ 대상의 시들이 거의 반세기에 걸친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통과하며 그려낸 다양한 풍경과 감각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된 것인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인 각자의 개성적인 시선과 목소리 못지않게 사회적 분위기와 공동체의 소망이 도저히 하나의 흐름으로 묶거나 규정할 수 없는 그토록 다양한 ‘인천’의 편차와 복합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일 터이다.

46) 한 심사위원은 이 글에서 인천을 자신의 장소로 갖지 않는 식민주의 시인들의 식민주의적 (무)의식에 대한 검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의견대로 어찌면 ‘관광(객)’의 시선과 태도로 “인천에 제물포”를 응시하고 관찰하는 본문 속 조선시인들의 서정과 언어에 어떤 형태로든 아니면 전도된 방식으로 식민주의적 (무)의식의 편린이 점점이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의 궁극적 목표가 일본(인)의 ‘진센’과 “참조선인”의 “제물포”를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감안하여 그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박인환은 해방과 더불어 “해외에서 동포들이 고국을 찾아들 때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 인천항”임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새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벌어진 좌·우파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인천항’을 아연실색할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것은 ‘숙사(宿舍)’와 주둔소에 성조기가 “퍼덕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니온·자크가 날리는 식민지 향항(香港)의 야경”과 “일본이 지배했던 상해(上海)의 밤”을 “소리 없이 닮아”(『인천항』, 1947) 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부정적 풍경은, 배인철이 날카롭게 시화했듯이 ‘인천항’을 “노예 해안”, 곧 “자유로운 내 땅에서도 새로운 노예상／아니 낚설은 손님마저／SLAVE COAST를 그리고 있”(『노예 해안』, 1947)게 하는 또 다른 식민화의 원천이 된다.

이 식민화의 광경은 또 다른 국적(‘소련’)의 점령군이 활개 치던 북한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곳에서는 “수만의 레프트, 검은 주먹이／수천만의 검은 원한”(『조 루이스에게』, 1947)이 계급 및 민족 해방의 완수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그렇지만 이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것은 권력의 독단적인 사유화와 퇴폐화랄 수밖에 없는 ‘김씨 세습체제’라는 ‘타락한 혁명’의 ‘폭력적 감옥’을 세우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인천항’은 식민지 시대 ‘제물포’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밀어내며 새로운 혁명 시대의 가능성을 엿보는 한편 그 불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양가적인 형식으로 해방 후 한국인의 눈과 가슴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Abstract〉

Inside and Outside the Colonial City of ‘Jemulpo’ : Centered on the poem ‘Incheon’ from the 1920s-40s

Choi, Hyun-Sik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placeness’ of ‘仁川 濟物浦’ in the 1920s-40s. I read ‘仁川 濟物浦’ as ‘Jinsen Jemulpo’. This is to reveal both the Japanese violence and the Korean impoverishment that occurred during the colonial modernization of Incheon. The contradictory ‘Jinsen Jemulpo’ constantly expanded the strange exoticism and othered landscape there. To reflect on this negative phenomenon, Joseon poets adopted the ‘observer’s gaze’ and ‘vicarious experience’ method of borrowing the role of a visitor. As a result, the landscape of ‘Jinsen Jemulpo’ greatly revealed the aspect of ‘placelessness’ and, on the contrary, the desire to return to the ‘true place’ grew stronger. Kim, So-Wol deeply revealed the emotions of separation and grief in ‘Jinsen Jemulpo’. Jeong, Ji-Yong and Kim, Ki-Lim sharply depicted the sadness and loneliness of ‘Jemulpo’ from an outside perspective. Park, Pal-Yang found the abnormality of wandering, exile, and deportation in ‘Incheon Harbor’. To overcome this, he strengthened his orientation towards ‘cosmopolitanism’. Oh, Jang-Hwan utilized the method of paradox to rescue a ‘Jemulpo(people)’ besieged by the powerful others of ‘Jinsen’. By introducing sailors and prostitutes who indulged in debauchery, he denounced the decadence of colonial ports and strongly appealed to the need for a better life. Through the above artistic process, ‘仁川 濟物浦’ has gained hope of returning to its original place in Joseon, and the true place of healthy living.

Keywords : Incheon, Jemulpo, Jinsen, Japanese imperialism, Colonial Joseon, Placeness, the Tourist gaze,
Kim So-Wol, Jeong Ji-Yong, Kim Ki-Lim, Park Pal-Yang, Oh Jang-Hwan

접수 : 2023년 00월 00일

심사완료 : 00월 00일

게재확정 : 00월 00일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권영민 편, 『정지용 전집』 1~3, 민음사, 2016.
- 김기림, 『김기림전집 1: 시』, 심설당, 1988.
- 김소월, 「제물포에서: 밤」, 『개벽』 1922년 2월호(통권 20호), 1988.
- 김용직 편, 『원본 김소월 시집』, 깊은샘, 2007.
- 박수연·노지영·손택수 편, 『오장환 전집 1: 시』, 솔, 2018.
- 배인철, 「노예 해안」 외, 『황해문화』 1996년 겨울호(통권 13호), 1996.
- 서정주, 「현대조선시약사」, 서정주 편, 『현대조선명시선』, 운문사, 1950.
- 염동섭·염철 편, 『박인환 문학전집 1: 시』, 소명출판, 2015.
-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부사(仁川府史) 1883~1933』, 2004.
- 유성호 편, 『박팔양 시선집』, 현대문학, 2009.
- 편집부, 「정지용의 일본어 시 2」, 『지구적 세계문학』 2015년 가을호(통권 6호).
- 大和田建樹, 『滿韓鐵道唱歌』, 大阪:金港堂書籍, 1906.
- 飯田季治, 『日露戰爭 大捷軍歌-海戰の巻』, 大阪:金港堂書籍, 1904.

2. 논문 및 단행본

-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김정은, 「일제강점기 월미도유원지를 통한 행락 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5), 한국조경학회, 2014.
- 부산근대역사관,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부산 B씨의 인천기행』, 2008.
- 선집편집위원회, 『한국문학이 그려낸 인천』, 인천광역시, 2015.
- 염복규, 「日帝下 仁川の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 월미도와 송도 유원지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4,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11.
- 이권희, 『국가와 교육: 메이지 국민교육사』, 케포이북스, 2017.
- 이재원, 『제국의 시선, 문화의 기억』,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 이희환,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 근대도시 인천의 역사·문화·공간』, 역락, 2008.
- 이희환,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 작가들, 2010.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인천 문필가 현(玄)의 부산기행』, 2008.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 『문학 속의 인천, 인천의 문학』, 글로벌콘텐츠, 2014.
- 황규수, 『한국 현대시와 인천 심상지리』, 보고서, 2015.
- 수전 손택, 홍한별 역, 『우울한 열정』, 이후, 2005.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1995.
- 에드워드 S. 케이지, 박성관 역, 『장소의 운명』, 에코리브르, 2016.
- 존 어리·요나스 라슨, 도재학·이정훈 역, 『관광의 시선』, 소명출판, 2021.

-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2002.
- 아리야마 테루오, 조성운 외 역, 『시선의 확장: 일본 근대 해외관광여행의 성립』, 선인, 2014.
- 若林宣, 『帝國日本の交通網』, 青弓社, 2016.
- 佐野眞日 他, 『上海時間旅行: 蘇る“オールド上海”の記憶』, 山川出版社, 2010.

